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스포츠매니지먼트 석사 학위논문

스포츠 기사의 품질 및 보도 행태 비교:

2020 도쿄올림픽 기간 뉴욕타임스와 국내 일간지를 중심으로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

이 윤 하

스포츠 기사의 품질 및 보도 행태 비교:

2020 도쿄올림픽 기간 뉴욕타임스와 국내 일간지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기 한

이 논문을 스포츠매니지먼트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이 윤 하

이윤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8월

위 원 장 _____ 임 충 훈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권 성 호 _____ (인)

위 원 _____ 김 기 한 _____ (인)

국 문 초 록

스포츠 기사의 품질 및 보도 행태 비교:

2020 도쿄올림픽 기간 뉴욕타임스와 국내 일간지를 중심으로

이 윤 하
서울대학교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2020 도쿄올림픽 기간 뉴욕타임스와 국내 종합일간지 스포츠 기사의 품질과 보도 행태를 분석해 비교했다. 그간 국내외 언론학계에서는 기사 품질의 저급화 문제에 대한 지적이 두드러짐에 따라 저널리즘 품질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들을 진행해왔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좋은 저널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계속되면서 신뢰성 있는 기준을 토대로 개별 기사의 품질을 측정하는 연구가 이어졌다. 2010년대 들어서는 정치, 법조, 경제 등 특정 분야별 보도에 대한 기사의 품질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됐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스포츠 보도를 대상으로 개별 기사의 품질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스포츠 기사와 해외 유력지 스포츠 기사를 비교 분석한 연구 또한 소수에 그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좋은 스포츠 저널리즘은 무엇인지를 분석한 연구를 바탕으로 투명 취재원의 수, 이해 당사자의 수, 관점의 다양성, 사건 중심/분석 중심 기사 여부, 기사의 길이, 보도 프레임을 각각의 기사에서 분석한 뒤 비교해 보았다. 앞서 언급한 측정 도구는 언론학계에서 기사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분석 대상이 된 기사는 총 440건으로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인 2021년 7월 23일부터 폐막식 다음날인 8월 9일까지 조선일보, 한겨레, 뉴욕타임스 지면에 실린 도쿄올림픽 기사는 모두 포함했다.

본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뉴욕타임스가 국내 종합일간지보다 스포츠 보도의 품질이 수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다 많은 맥락과 분석을 담은 '사건 중심 기사'의 비중은 뉴욕타임스가 확연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 취재원의 수는 뉴욕타임스가 국내 종합일간지 평균의 1.8배였으며 기사 길이의 평균은 뉴욕타임스가 국내 종합일간지 평균의 2배가 넘었다.

스포츠 보도의 현재를 진단하고 좋은 스포츠 저널리즘, 좋은 스포츠 기사를 위해 개별 기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시하는 것은 스포츠

저널리즘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언론학계에서 기사의 품질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활용해 처음으로 스포츠 보도에 적용해 국내외 스포츠 기사의 품질을 분석하고 비교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 보도의 특성을 고려해 스포츠 기사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보도 프레임을 분석하기도 했다. 따라서 스포츠 보도의 현재를 진단했다는 점, 스포츠 보도 연구에서 전례가 없는 방법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스포츠 저널리즘, 퀄리티 저널리즘, 스포츠 기사의 품질, 2020 도쿄올림픽, 텍스트 분석, 프레임

학 번: 2020-23695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필요성 ····· 3
3. 연구의 목적 ····· 6

Ⅱ. 선행 연구 ····· 8
1. 좋은 스포츠 저널리즘 ····· 8
1) 스포츠 저널리즘 ····· 8
2) 좋은 스포츠 저널리즘 ····· 10
2. 한국의 스포츠 저널리즘 ····· 12
1) 국내 스포츠 저널리즘 연구 ····· 12
2) 스포츠 보도 프레임 연구 ····· 14
3. 기사의 품질 ····· 19
1) 미국 PEJ의 Reporting Index ····· 20
2) 국내 뉴스 품질 선행 연구 ····· 24

Ⅲ. 연구문제 ····· 30

Ⅳ. 연구방법 ····· 31
1. 자료의 구성 ····· 31

1) 분석 기간 ····· 31
2) 분석 대상 ····· 31
2. 분석 유목 ····· 33
3. 코더 간 신뢰도 ····· 41

Ⅴ. 연구 결과 ····· 43
1. 연구 문제 1-1 ····· 44
2. 연구 문제 1-2 ····· 45
3. 연구 문제 1-3 ····· 46
4. 연구 문제 1-4 ····· 47
5. 연구 문제 1-5 ····· 48
6. 연구 문제 1-6 ····· 51

Ⅵ. 결론 및 논의 ····· 54

Ⅶ. 제언 ····· 59

참고문헌 ····· 60
부록 ····· 67
Abstract ····· 71

표 목 차

표 1. 일자별 기사 수 ····· 33
표 2. 기사의 길이 측정 방법 ····· 37
표 3. 분석 유목 ····· 42
표 4. 분석 유목별 분석 도구 ····· 43
표 5. 기사의 구성 방식 비교 ····· 44
표 6. 투명 취재원의 수 비교 ····· 46
표 7. 기사의 길이 비교 ····· 47
표 8. 기사의 길이 최솟값/최댓값 비교 ····· 47
표 9. 갈등기사 내 이해 당사자의 수 ····· 48
표 10. 갈등기사 내 관점의 다양성 비교 ····· 51
표 11. 특정 프레임 빈도 비교 ····· 53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스포츠 보도는 저널리즘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스포츠 보도는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 비해 저널리즘의 공공성, 객관성, 정확성과 같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들이 비교적 덜 강조돼 왔다. 스포츠 저널리스트 하워드 코셀은 “스포츠는 인간 삶의 장난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며 스포츠부가 소위 장난감 부서(toy department)로 여겨져 왔다고 했다(Boyle, 2006; 조지현·유상건·김동학, 2021). 송해룡(2002)은 시청률에 매달리는 방송사, 가판 판매율에 매달리는 스포츠 미디어를 ‘정확한 양질의 보도’를 추구하기 보다는 대중의 ‘관심을 끌고 팔리는 텍스트 만들기’에 우선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포털이라는 ‘온라인 가판대’에서 기사 내용의 고품질화 보다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뽑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현재의 언론사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를 방증하듯 2000년 중반부터 기사 각각의 품질을 평가하는 국내 저널리즘 연구에서 스포츠 보도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물론 그러한 이유에 ‘경기’를 다루는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이 고려됐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인 공공성, 객관성, 정확성 등의 기준이 스포츠 보도에는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김기태(2010)는 스포츠 저널리즘에 관한 논의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논제가 ‘저널리즘의 기본에 얼마나 충실한가’의 문제라고 말하며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등을 기본 원칙으로 들었고 스포츠 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데 상대적으로 소홀 또는 간과해 왔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사회, 경제와 같은 일반 분야의 보도에서처럼 스포츠 보도에서 또한 동일한 기준에 의해 개별 기사의 품질이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기사의 품질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 스포츠 보도를 살펴본 사례는 전무에 가까웠다.

스포츠 보도만을 대상으로 한 저널리즘 관점에서의 연구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다. 스포츠 보도에서 승리지상주의, 성차별주의, 지나친 민족주의, 선정주의 등과 같은 보도 프레임을 개별적 또는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해당 연구들에서 분석 기준으로 삼은 보도 프레임은 기존에 스포츠 보도를 평가하는 연구에서 스포츠 보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보도 프레임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 프레임이 연구나 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만 되면 수많은 스포츠 기사에 '노메달', '노골드' 등의 승리지상주의적 표현이 끊임없이 반복해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언론시민연합(2021)이 2020년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국내 언론의 성적지상주의 보도를 분석했더니 "'노골드' 수모", "태권도의 몰락", "종주국으로서는 참담한 성적표" 등의 표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런 언론 보도에 비해 국민들은 '금메달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온 힘을 다한 선수들에게 찬사를 보냈으며 모든 4등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이성원·이주원·손지민(2021)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널리즘 원칙에 따라 계량적으로 각각의 기사의 품질을 평가해 분석하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보도 프레임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은 스포츠 보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더 나은 스포츠 저널리즘이 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실제로 언론 현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기사 품질 저급화가 급격하게 확산되자 언론학계를 중심으로 저널리즘의 품질 문제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김경모 외, 2018). 이처럼 기사 품질 저급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도 품질의 현주소에 대한 연구가 계속돼 왔지만, '품질 저급화' 문제를 함께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프레임이라는 연구 외에 기사의 품질을 분석하는 연구가 거의 없는 스포츠 보도의 품질은 과연 어떨까라는 질문이 연구의 배경이 되었다.

2. 연구의 필요성

뉴스 소비자가 기사를 읽고 해당 기사가 좋은 기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이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무엇이 좋은 기사이며 한국의 기사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를 알 수 있어야 현장의 기자와 편집 책임자에게 더 좋은 기사를 생산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김경모 외, 2018). 그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기사를 쓰도록 하는 사회적 압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압력은 공적 역할을 하는 언론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정책 기관들이 우리 환경에 적합한 저널리즘 진흥 정책을 만들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기사의 품질에 관한 대중의 의심과 의문이 많았다. 그런 와중에 국내 기사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깨는 사건들이 반복됐다. 불가리스 음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검증없이 보도해 오보를 내보낸 불가리스 보도 논란, 팩트체크 조차 하지 않고 세월호 탑승객을 전원 구조했다고 보도해 국가적으로 논란이 됐던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가 대표적이다. 사실 확인이라는 기본적인 언론의 의무이자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대대적으로 비춰지면서 언론 불신 현상은 의심과 의문에 그치지 않고 기사 전체 품질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그러면서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말인 ‘기레기’라는 용어, 더 심하게는 기자와 구더기를 합친 ‘기더기’라는 용어가 기자를 비난하는 표현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그런 언론 중에서도 ‘장난감 부서’ 또는 ‘끼어 있는 부서’ 정도로 여겨져 온 스포츠 보도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승리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패배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긴다거나 선수의 경기력이 아닌 외모에 보다 집중한다거나 과도한 민족주의적 표현을 쓰는 등 스포츠 보도에서 문제로 꼽혀온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의 보도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좋은 기사란 무엇이며 어떤 언론이 우수한 뉴스 공급자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좋은 저널리즘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진행돼 왔고 미국과 영국의 경우 180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초기 연구들은 경영과 수용자 그리고 기사 등의 요소를 통합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좋은 저널리즘의 기준을 고민했다. 그러다 학문적 논의가 축적되면서, 계량적으로 검증 가능한 좋은 저널리즘의 측정 기준을 고민해온 연구자들은 언론사의 생산물인 기사의 품질을 측정하거나 기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집중하는 접근법을 정교하게 다듬어 왔고 이러한 접근법이 현장 기자뿐 아니라 수용자들까지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며 지역이나 국가, 문화의 경계를 넘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적 지표를 만드는 데도 유용하다고 판단했다(김경모 외, 2018).

이후 2000년대 들어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이 가속화되는 등 디지털 파괴 현상이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뉴스 소비자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기사를 선택해 읽게 되는 것이 일상화됐다. 이는 한 언론사의 신문 또는 방송만 선택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사를 개별 기사의 형태로 접하기 때문에 각각 기사의 품질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2004년부터 언론과 뉴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분석과 평가가 진행됐으며 특히 미국의 민간 언론연구기관인 PEJ(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는 2004년부터 매년 '미국 언론 연차 보고서(The State of the News Media: An Annual Report on American Journalism)'를 발간했으며 이 보고서는 'PEJ 보도지수'를 가지고 개별 기사의 품질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한다(박재영, 2006). 이 'PEJ 보도지수'는 이후 국내 연구에서 기사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좋은 기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다. 그러면서 정치, 법조, 경제 등의 보도 분야에서는 이 'PEJ 보도지수'를 중심으로 각 보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사의 품질을 연구했다.

한국 언론계에서 이같이 기사의 품질을 분석하기 위해 계량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연구는 이재경과 김진미의 연구(2000)를 시작으로 PEJ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처음분석한 박재영(2006)의 연구로 이어졌다. 이후 박재영과 이완수는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박재영의 2006년 작업을 진전시키는 뉴스 평가

지수 개발 연구를 실시했으며 이후의 연구에서 이들은 PEJ가 사용하는 주요 유목에 한국 저널리즘 현실을 고려한 유목들을 추가해 총 13개의 분석 유목을 활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대에는 박재영·안수찬·박성호(2014)가 대통령 선거 보도의 품질을, 박성호·윤영민(2016)이 방송 법조 뉴스의 품질을, 이완수·배정근(2016)이 경제 뉴스 품질과 관련한 연구를 내놓으면서 분야별 특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기사의 품질 평가 기준이 제시되고 분석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 등 해외 유력 언론과 비교한 경우와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뉴스 전반의 품질과 비교한 경우 등 거의 모든 연구 결과는 기사의 품질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자들은 말했다. 그렇게 신뢰성 있는 기준에 따라 분석한 연구가 축적됨으로써 현재 보도의 모습을 진단하고 좋은 기사를 생산하도록 계속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의 품질 연구에서 유독 스포츠 보도는 연구 대상이 되지 못했다. 특정 분야가 아닌 1면 기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기는 했으나, 올림픽이나 특별한 스포츠 경기가 있는 날이 아니면 스포츠 기사는 1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 기사를 포함시켰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이는 결국 스포츠 기사의 품질과 관련해 축적된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앞서 설명했듯 개별 기사의 품질을 평가해 분석하고 비교하는 연구가 좋은 기사를 생산하도록 그 기준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기준에 의해 분석된 적 없는 스포츠 보도를 대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좋은 스포츠 기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사의 품질을 살펴 본 연구 가운데 정치, 법조, 경제처럼 특정 분야의 기사를 분석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보도의 특성을 고려해 'PEJ 보도지수'와 '보도 프레임'을 함께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한국 일간지의 기사의 품질을 비교해 현재 스포츠 보도가 잘하고 있는 점 또는 미흡한 부분은 무엇인지 진단해 봄으로써 스포츠 보도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데 있다.

물론 뉴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일은 어렵다. 뉴스를 평가하는 기준이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저널리즘의 덕목들 즉 뉴스의 사실성, 정확성, 객관성, 균형성, 공정성 등이 그 예시다. 스포츠 저널리즘이라면 스포츠 분야 취재에서의 특수성에 맞는 기준이 더 추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덕목들을 모두 포함하여 모든 뉴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일반적으로 취재원의 수는 뉴스의 사실성이나 객관성, 다양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다다익선이지만, 기자는 별도의 취재원 없이 현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정보들을 잘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기사를 쓸 수 있는 것도 앞의 이야기를 뒷받침한다(박재영·이완수,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품질을 오랜 기간 평가 해 온 연구자들은 과거 선행연구들이 뉴스 품질 평가 기준을 만들고 평가해 온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바로 국내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뉴스의 완성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한국 뉴스와 미국 뉴스를 비교한 일부 연구는 국내 언론 기사가 미국 언론 기사에 비해 인용과 취재원 적시, 기사작성 방식, 뉴스 프레임, 윤리적 실천 등 대부분의 평가 요소에서 현저히 뒤쳐지는 모습이었음을 보여준다(김수정·조은희, 2005; 김재영·양선희, 2007; 남재일·박재영, 2007; 박재영·이완수, 2007a, 2007b; 이재경, 2006, 2007a).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언론사들의 뉴스를 평가하고 취재보도의 준거로 여겨지는 뉴욕타임스와 비교함으로써, 국내 언론 보도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미흡한 점은 어떤 것인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사의 품질 연구에서 한 번도 중심 대상으로 분석된 적 없는 스포츠 기사라면 더욱 그렇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논의가 앞으로 한국 스포츠 보도가 좋은 스포츠 저널리즘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Ⅱ. 선행 연구

1. 좋은 스포츠 저널리즘

1) 스포츠 저널리즘

스포츠 저널리즘의 정의는 다양하다. 그 중 많이 언급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 스포츠 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의 대상 영역이 스포츠로 특화된 활동으로서 미디어가 스포츠 관련 공공적 사건과 정보를 수집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모든 활동이라는 것이다(윤득헌, 2008). 이 같은 정의의 스포츠 저널리즘은 신문이나 TV, 뉴미디어 등의 매체를 통해 기사나 영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수용자에게 전달된다. 스포츠에 대한 정보를 선택, 해석해 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수용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스포츠 저널리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현대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김기태, 2010). 스포츠 저널리즘은 취재와 보도를 한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의 보편성을 갖고 있으며 스포츠 분야를 취재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고 있다(유상건, 2019).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저널리즘에 관한 논의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 바로 저널리즘의 기본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대한 것이다(김기태, 2010). 보거트(Bogart)는 좋은 저널리즘의 핵심요소로 정확성과 심층보도, 불편부당성, 탐사보도, 글쓰기 능력을 꼽았다(김경모 외, 2018).

그렇다면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바로 스포츠 저널리즘의 최대 관심사는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벤트 즉, ‘경기 장면’이다. 따라서 수용자들이 결과를 궁금해 하는 스포츠 행사에 대한 보도, 해설, 비평을 저널리즘의 기본에 충실하게 보도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 저널리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경기뿐 아니라 스포츠 경기, 현장, 외교 등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성실히 보도하는 것 또한 스포츠 저널리즘 본연의 역할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오늘날 스포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과 관계를 맺고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갈등하는 복합 사회 공간으로 변했다(김기태, 2010). 이는 다시 말하면, 단순히 경기 자체 또는 경기 상황에 관련된 보도만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저널리즘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스포츠 미디어의 정보 전달기능은 일차적으로 스포츠 경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빠르고 정확한 팩트만 있는 기사는 로봇이 쓰는 기사와 다를 것이 없다. 신속성과 정확성과 함께 심층성, 공정성을 담아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한 기사를 생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스포츠의 오락성이나 상업성 때문에 부정확하고 편파적이거나 주관적이고 선정적, 피상적인 보도가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김기태, 2010). 편파적, 주관적, 선정적인 보도는 저널리즘의 원칙 중 공정성을 심하게 해칠 뿐 아니라 스포츠의 가치 또한 훼손하는 것과 같다.

김원제(2005)는 언론사 간 과다한 경쟁, 굳혀진 취재관행, 기자의 인식과 전문성 부재, 제작시스템 문제,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스포츠미디어가 오히려 낙관주의, 선정주의, 민족주의, 영웅주의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송해룡(2002)은 특히 전문성 없는 스포츠 저널리즘은 과학적 분석 없는, 또는 신뢰할 만한 정보원에 대한 인용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정적 낙관주의, 승리 이데올로기에 취한 스포츠 민족주의, 큰 활자와 격렬한 기호에 기대는 감정적 선정주의를 스포츠 보도에 끌어들여 세계주의와 분화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프로스포츠 및 인기종목 위주의 편향성, 인기 혹은 스타중심의 문화와 보도행태, 승리지상주의식 보도행태 등에 의해 스포츠 저널리즘이 보편성과 형평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저널리즘으로서 고수해야 할 공공성과 공정성을 위협하게 된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최만수·김동규, 2017).

특히 올림픽은 월드컵과 더불어 전 세계 최고의 축제 중 하나이며 국가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합을 이루는데 일조하는 대회다(박보현·임번장, 2006).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라 불리는 피에르 쿠베르탱은 올림픽을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으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다”라는 말로 올림픽의 본질을 설명하기도 했다(신현군, 2014). 따라서 올림픽은 승자와 비승자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가치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에 참가한 그 자체로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대회인 것이다(이학준, 2016; 오영도, 2010; 허승욱·백원철, 2013).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올림픽 대회의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매체에게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지니고 취재보도 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좋은 스포츠 저널리즘

그렇다면 과연 ‘좋은 스포츠 저널리즘’이란 무엇일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 Weedon 등(2018)은 “좋은 스포츠 저널리즘’이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수한 스포츠 보도가 다뤄진 사례들을 살펴본 376개의 스포츠 미디어 연구를 8개의 주요 학술지(JSSI, IRSS, S and S, IJSC, OL, SSJ, SinS, SC)에서 추출해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구자는‘좋은 스포츠 저널리즘’으로 여겨지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보다 적당하게 맥락을 담은 보도(more and/or more appropriately contextualized reporting)’다. Emig(1986)의 ‘Barriers of investigative journalism’ 이후 그리고 Schultz와 Sheffer(2010)가 긴 문맥을 담지 못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트위터의 유행을 언급하며 스포츠 보도에서 보다 문맥을 많이 담는 것에 대한 요구가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심층적이고 비판적인 분석이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자들로 하여금 유용하고 종합적이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문맥적인 심층성이 갖춰진 보도가 기사의 품질이 좋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Brooks 등(2014)은 뉴스의 심층성은 일반적으로 정보의 깊이와 다양한 관점으로 구성된다고 했다. 심층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뉴스는 수용자가 기사에서 다루는 문제의 본질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이는 단순한 설명이나 묘사 보다는 맥락을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현된다는 것이다(이건호, 2010). 따라서 Barnhust와 Mutz(1997)는 사회적 문제의 맥락, 해석, 주제의식을 담았느냐가 바로 기사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둘째는 '보다 비판적인 언론의 업무와 보다 균형 잡히고 편향적이지 않으며 중립적인 보도(more critical media work and more balanced, unbiased and neutral reporting)'이다. 논문은 비판적인 저널리즘과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인 저널리즘이 상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균형 잡히고 편향되지 않은 보도를 위해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조차 기계적인 중립을 유지할 경우 사회 정의와 맞지 않는 상황도 종종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이고 균형적이며 객관적인 스포츠 미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수많은 연구자들에 걸쳐 제기되어 왔으며 비판적인 저널리즘에 대한 요구는 종종 동전의 반대편에 있었다고 연구자는 설명했다.

셋째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선수들에 있어서 보다 공평한 보도(more equitable coverage of different sports and athletes)'다. 연구는 최근 Vincent(2002)가 100주년 올림픽 경기에서 남성과 여성 스포츠의 보도가 보다 더 공평한 수준에 도달한 것을 발견했지만, 이는 공공 서비스나 사회 정의를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상업적 의무에 의한 것 같다는 주의를 덧붙였다. 여성 스포츠에 있어서 불평등한 보도는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조언을 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계속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다고 연구자는 덧붙였다.

넷째는 '뉴스룸에서의 보다 공평한 대표자(more equitable representation in the newsroom)'이다. 이는 뉴스룸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 사이의 공평함을 뜻한다. 뉴스룸에 속한 편집자와 기자, 칼럼니스트, 디자이너 등이 포함되는 얘기다. 논문은 2011년에 Lapchick 등에 의해 분석된 연구에 의하면 320곳의 미국 신문과 스포츠 웹사이트를 설문조사한 결과, 스포츠 편집자의 94%, 스포츠 보조 편집자의 90%, 기자의 89%, 칼럼니스트의 90% 그리고 카피 에디터와 디자이너의 84%가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Nylund(2004) 또한 연구에서 80%의 미국 스포츠 토크 라디오 쇼가 남자들이 진행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Sabo 등(1996)은 이러한 스포츠

매체에서의 인종과 소수민족에의 권한 분산은 그들의 운동 능력뿐 아니라 저널리즘, 제작, 관리 능력에도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섯째는 '보다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으며 교육적인 보도(more socially responsible and educative coverage)'이다. Bernstein(2002)는 "미디어는 적어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서비스의 역할을 하는 미디어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교육적인 보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여섯째는 '저널리스트의 성찰(journalist reflexivity)'다. Poulton(2005)은 균형 잡힌 보도는 필연적으로 언론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반사성과 신중함을 수반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보도에서든 기계적 균형을 경계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균형 잡힌 보도를 추구함으로써 양쪽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저널리스트 스스로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한국의 스포츠 저널리즘

1) 국내 스포츠 저널리즘 연구

스포츠미디어의 보도 행태 연구로는 스포츠 저널리즘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논하는 연구, 특정 이벤트의 스포츠 보도 행태를 살펴본 연구, 특정 종목이나 성별에 편향된 보도를 비판한 연구, 기사의 형식적 구조를 분석한 연구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있다.

스포츠 저널리즘의 보도 행태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올림픽을 통한 한일 민족주의에 대한 보도 행태에 관한 송해룡(2008), 이학준(2006) 등의 연구가 있다. 스포츠 영웅주의와 관련된 연구로는 텔레비전 스포츠 뉴스의 영웅화 기법과 스포츠 영웅의 심층적 의미를 분석한 전지희(2000)의 연구, 스포츠 영웅의 미디어프레임과 수용 특성을 살펴본 윤여광·이인희(2005) 의 연구 등이 있다(임재구, 2014).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통한 보도 행태에 관한 연구로 한미 간의 올림픽 보도

행태에 관해 비교한 지혜원(2004)의 연구, 2012 런던 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관련 신문기사를 비교 분석한 백승엽(2012)의 연구가 있으며 홍승후·김범준(2016)이 보수와 진보 신문의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경쟁, 관련 인사, 분산 개최에 대한 내용을 분석했으며 김용은·민솔비(2018)가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남북 단일팀에 대한 신문 보도의 프레임 유형과 보도 내용의 특성과 관련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총 6개 종합일간지를 분석한 바 있다. 올림픽 신문보도에서 성 편향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는 홍승후(2016)가 2014 소치 동계 올림픽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홍승후(2016)는 신문의 사진과 기사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보도되었다고 했으며 보도된 여성 중요 인물에 대한 보도는 선정주의, 외모 지상 주의, 그리고 가족주의 프레임 등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남성 중요 인물에 대한 보도는 귀화 문제, 그것으로 인해 불거진 체육계의 부조리와 국가주의는 물론 호의적인 반승리주의의 프레임을 보여주었다고 서술했다.

올림픽 언론 보도 실태와 관련한 연구는 배재윤·Wang Yi(2016)이 한국과 중국의 주요 일간지의 2014 소치 동계 올림픽 보도를 분석 했는데, 한국은 스트레이트 기사가 많은 반면 중국은 스트레이트, 해설 및 분석 기사, 칼럼의 비율도 높았다는 등의 결과를 냈다. 이외에도 2012 런던 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신문 기사를 비교분석한 백승엽(2014), 베이징 올림픽 신문 기사의 보도 유형과 상징화를 연구한 이장영·강효민(2010), 2004 아테네 하계 올림픽 신문 보도를 성별 보도량을 중심으로 분석한 고은하(2008), 한미간의 2004 아테네 하계 올림픽 보도 행태에 관해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 보도를 비교 분석한 지혜원(2004), 시드니 하계 올림픽 스포츠 신문 기사의 내용을 분석한 이장영(2001) 등의 연구가 있었다.

김기태(2010)는 한국 스포츠 저널리즘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훼손, ②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자본주의 재생산,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민족주의, 국가주의, 지배 체제나 집권세력의 정당성 강화) 보도, ③ 과장, 미화, 자극적인 성적 표현 등의 선정성, ④ 상업주의, ⑤ 스포츠계 비리 은폐 보도 등을 언급했다. 유병철·이종영(2017)은 스포츠 기사의 문장 길이 특성을 다른 취재 영역별, 일간종합지 매체별 그리고

스포츠종목별로 파악한 연구를 진행해 정치 기사 문장 길이가 가장 길고 스포츠 기사가 가장 짧았다는 분석 결과를 내기도 했다.

2) 스포츠 보도 프레임 연구

틀짓기(framimg) 이론은 언론 매체가 수행하는 사회적 이슈의 의미적 구성 방식에 대해 주목한다(이준웅, 2005). 이 '프레이밍'이라는 개념은 뉴스가 내용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프레임(frame)에서 유래했다(Gamson·Modigliani, 1989). 뉴스 프레임은 뉴스 내용을 조직하는 중심적 아이디어로 선택, 강조, 배제, 정교화 등의 작업을 통해 맥락을 제공하는 준거이다(Nelson·Clawson·Oxley, 1997). 언론에서 보도하는 현실은 객관성을 표방한 '재구성된 사건'으로(Tuchman, 1978) 뉴스가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건의 특정 측면을 강조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실제로 보여지는 현실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준웅 외, 2015; Entman, 1991). 뉴스 프레임 개념을 이론화한 로버트 엔트만(Robert Entman)은 프레임을 인지된 현실 일부를 선택하여 기술된 항목에 대한 특정한 문제 정의, 인과 해석 등을 촉진하는 방식이라고 했다(Entman, 1993). 따라서 언론이 해당 사실을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뉴스 프레임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특정한 사건에 대한 의미를 규정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의 판단에 대한 선택의 문제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정강선 외, 2006).

뉴스 프레임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준웅(2005)은 뉴스가 사용하는 용어, 강조와 생략, 은유와 직유, 시각적 정보 제공 방식 등의 주제를 구성하는 요인의 선택과 배열 방식을 통해 보도 대상에 대한 전체적 해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뉴스 프레임'이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개인의 인식, 해석, 의견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Shah(1996) 또한 이 같은 틀짓기, 즉 프레이밍 연구를 통해 뉴스의 프레임이 단순히 뉴스의 이해나 해석 또는 의견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넘어서 생각과 판단의 방식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했

다(이준웅 외, 2015).

이를 종합하면 언론의 프레이밍 효과는 ‘뉴스 프레임(news frame)’이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뉴스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의견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이준웅, 2005). 즉, 미디어는 프레이밍 과정에서 특정 부분을 축소하거나 확대,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거나 시민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Iyengar & Kinder, 1987; 고동완·이창현, 2022).

뉴스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귀납적 접근방법과 연역적 접근방법이 있다(Semetko&Valkenburg, 2000). 귀납적 접근방법은 뉴스 프레임에 대해 어떤 고정적 관점을 고집하지 않고 뉴스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프레임을 모두 찾아내는 방법이다. 일정한 분류 기준을 세우거나 사전에 검증된 프레임에 국한하지 않고 연구 대상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가능한 프레임을 추출해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다(이준웅 외, 2015). 이는 뉴스에 담긴 다양한 프레임을 연구 목적에 맞게 도출할 수 있기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프레임을 후속 연구에서 동일하게 반복해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 또한 가지고 있다(양승현, 2012).

반면 연역적 접근방법은 선행 연구를 통해 추출된 뉴스 프레임을 이용하는 것인데, 특정 프레임을 내용분석 유목으로 미리 정의한 뒤 이러한 프레임이 뉴스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하는 접근법이다(이준웅 외, 2015). 이 방법은 뉴스 보도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프레임의 유형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행 연구자가 사용한 프레임을 후속 연구에서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본 연구에서는 연역적 접근방법을 사용해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스포츠 뉴스 프레임 가운데 ‘보다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으며 교육적인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프레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스포츠 보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비판 받은 프레임이기도 하다.

(1) 승리지상주의 프레임

승리지상주의 프레임은 스포츠 경기에서 승패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오직 승리하는 것만이 가치 있음을 부각시키며 초점을 맞추는 보도 프레임을 뜻한다. 이 승리지상주의 프레임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서희진·김옥현(2015)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보도한 언론이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맞대결에서 김연아가 우승한 것을 단순히 김연아 개인적인 승리뿐 아니라 국가적인 승리로 간주하는 기사를 쏟아냈다고 분석했다. 김연아가 아사다 마오를 이긴 것일 뿐인데, 마치 한국이 일본과 싸워 이긴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은 윤여광과 이인희(2005)가 스포츠영웅, 라이벌 관계에서 승리지상주의 프레임이 주요 프레임으로 다뤄졌음을 분석하면서 이 같은 과도한 승리지상주의가 스포츠에서의 개인주의를 심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엘리트주의를 강요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윤여광·이인희(2005)는 스포츠 영웅의 미디어프레임과 수용 특성을 연구한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갬슨과 라쉬의 패키지 이론을 사용해 분석했다. 2013년 스포츠 분야에서 가장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온 이승엽 선수 보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 언론이 2등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하며 지명도가 떨어지는 다른 선수는 이승엽 선수의 '도우미' 내지는 '들러리'로 취급하며 1등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승리지상주의 프레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강선·안재석·강종구(2006)는 스포츠신문 1면 기사프레임을 귀납적 방법을 사용해 분석했는데, 그 결과 그 어떤 프레임 중에서도 승리지상주의 프레임이 가장 많이 사용된 프레임이라는 결론을 냈다. 해당 논문은 갬슨과 라쉬(Gamson&Lasch)의 패키지 이론을 사용해 프레임을 분석했다. 연구자는 프레이밍 장치로서의 패키지 구성요소로 메타 프레임, 핵심 프레임, 프레이밍 장치, 추론장치가 있으며 프레이밍 장치로는 메타포, 비교 사례, 캐치프레이즈, 대상 묘사, 시각적 이미지로 나누어지며 추론 장치는 원인, 결과, 대안/해결책으로 나누어진다고 설명했다. 메타프레임은 사건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프레임, 즉 일반적 사고 요소이며 사건의 밑바탕을 관통하는 일종의 가치 또는 신념체계다. 핵심프레임은 미디어 프레임의 경쟁과정에서 수용자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주제들로부터 추출한 핵심적인 구성 아이디어를 말한다. 프레이밍 장치에서 메타포는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수사이고 비교사례/예증은 프레임을 전달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을 예시로 든 것이며 캐치프레이즈는 이슈에 대한 대중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슬로건 또는 타이틀을 의미한다. 대상묘사는 주제의 특성이나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정확한 표현으로 묘사한 것이며 시각적 이미지는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암시하는 상징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추론장치로 원인은 이슈가 되도록 만든 원인이고 결과는 이슈로 인한 결과이며 대안은 도덕적으로 호소하거나 상식을 강조하며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연구자의 설명이다(정강선 외, 2006).

(2) 성차별주의 프레임

성차별주의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별 짓고,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거나 남성의 부속물로 표현하고, 성적 매 력을 노골적으로 부각시킬 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여광·이인희, 2005). 박성희 등(2015)은 운동선수로서 지녀야 할 능력이나 위상보다는 여성 운동선수로서 포용적이고 여성적인 외모를 더 강조하는 프레임이라고 설명했으며 손연재 선수의 미디어 보도 방식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주는 수치로서 성차별 프레임이 가장 높은(46%)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고 성차별적 가치관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여성 스포츠 선수에 대한 성 고정관념이 많이 남아있음을 연구 결과가 보여준다는 것이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운동선수임에도 손연재 선수의 성적이나 운동 선수로서의 기량 능력보다는 손연재 선수의 외모를 중점으로 한 기사들이 미디어 노출이 훨씬 많았다.

(3) 지나친 민족주의 프레임

지나친 민족주의 프레임은 경기에서의 승리를 마치 자국 국력의 승리와 일치시키며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프레임이다. 국가와 민족을 비교해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임재구(2016)는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과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의 한국경기에 대한 신문의 보도행태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연구자는 독자들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기사들에 '민족주의적(자국 중심적)'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예를 들어, 한국대표팀을 '태극전사'로 호칭하고, '필승 코리아', '끈기의 코리아'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키며 올림픽 대회를 통하여 한민족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 대표팀과 국민들을 동일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기사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우월성을 부각시키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결과를 설명했다.

임재구와 정동근(2010)은 2009 월드베이스볼클래식대회 한일전에 대한 한국 언론의 민족주의적 보도 행태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 유독 한일전에서 '전사', '격전지', '대첩', '대공습', '습전보' 등 전쟁에서 쓸 법한 표현들이 자주 구사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지선과 김인형(2018)의 연구에서도 한일 언론 보도에서 앞선 연구와 같은 표현들이 쓰인 것이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윤여광과 이인희(2005)는 스포츠 영웅의 미디어프레임 분석에서 민족주의 프레임을 분석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극단적 국수주의 프레임을 살펴본 연구 결과에서 '일본은 없다', '태극기 휘날리며 빅리그 정복' 등의 표현으로 상대 국가를 폄하하고 민족 정서를 자극하는 보도 행태를 빈번하게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4) 선정주의 프레임

선정주의는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단어와 표현으로 스포츠 경기를 묘사하는 프레임이다. 윤여광과 이인희(2005)는 선정주의 프레임이 스포츠 경기를 '전쟁'과 같이 묘사하는 보도 프레임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러한 군사 용어 등을 헤드라인이나 문구에 사용해 자극적인 효과를 냄으로써 수용자의 시선을 끌고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강점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어떤 경기를 '이겼다', '졌다'식의 표현으로는 독자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스포츠 보도에서는 선정적 용어가 그 본질을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조미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연구자는 덧붙였다. 이수영(2009)은 선정주의를 인간의 감성적 혹은 원초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편집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으며 박성희 등(2015) 또한 선정주의 프레임을 운동선수의 강하고 빠른 이미지 등을 강조하며 선정적인 단어로 보도하는 프레임이라고 정의했다.

3. 기사의 품질

미국 내 퀄리티 저널리즘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축적되면서, 계량적으로 검증 가능한 좋은 저널리즘의 측정 기준을 고민하는 연구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면보다 온라인으로 기사를 소비하는 수용자들이 더 많아졌다. 따라서 개별 기사 각각의 품질이 중요해 졌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는 2000년대 이후 좋은 저널리즘의 평가 기준을 급격히 기사들의 특성에 주목하도록 하는 흐름으로 만들어왔다(김경모 외, 2018).

특히 미국 PEJ(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가 개발한 '고급 기사'의 기준은 최소한의 요소로 기사 품질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평가받아 왔다.

국내에서는 이 PEJ의 고급 기사 기준을 한국 신문기사 분석에 적용한 박재영(2006)의 연구가 뉴스 품질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박성호·윤영민, 2016). 이후 신문과 방송 기사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품질 연구가 나왔으며 대통령 보도, 정치 보도, 법조 보도, 경제 보도 등 특정 취재 분야로 범위를 좁혀 기사의 품질을 평가한 선행 연구(박재영·안수찬·박성호, 2014; 박성호·윤영민, 2016; 이완수·배정근, 2016; 유수정·이건호, 2020 등)들이 수행된 바 있다.

1) 미국 PEJ의 Reporting Index(보도 지수)

기사의 품질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연구 흐름의 초기를 대표하는 지수는 로젠스틸이 주도했던 「뉴스 매체 연차보고서The State of the News Media Report: An Annual Report on American Journalism」2005년 판에 포함된 '보도 지수Reporting Index'다. 미국의 민간 언론연구기관인 '우수 저널리즘을 위한 프로젝트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 PEJ'는 2004년부터 매년 미국 저널리즘의 수준을 평가하는 연차보고서를 내고 있다. PEJ는 아래에 제시한 <PEJ 보도 지수(Reporting Index)>를 기준으로 2004년부터 미국 신문 기사의 품질 수준을 평가하는 작업을 해왔다. 당시 이 작업에서 미국의 저명한 언론 연구 학자인 로젠스틸 등이 아래의 <좋은 기사의 기준>과 같이 좋은 기사로 평가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네 가지 기준을 공개했다. 로젠스틸 등 연구자들은 이 네 가지 기준 가운데 보편적으로 계량화하기에 편리한 3개의 기준을 선택해 제시했고 그것이 바로 아래의 <PEJ 보도 지수> 다. 이 '보도 지수'는 좋은 기사로 평가되기 위해 개별 기사가 최소한으로 갖춰야 하는 기준이다. 즉, 이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사는 '좋은 기사'가 아니라는 의미다.

<PEJ 보도 지수(Reporing Index)>

1. 넷 또는 그 이상의 투명한 취재원(Source Transparency)
2. 관점의 다원성(Presence of Multiple Viewpoints)
3. 넷 또는 그 이상의 이해 당사자(Number of Stakeholders)

<좋은 기사의 기준>

1. 취재원 사용의 깊이와 품질

2. 기사에 사용된 관점의 다원성

3. 이해 당사자의 다원성

4. 기사에 포함된 기자의 의견

PEJ는 '투명 취재원'이라는 새 개념을 개발하면서, 이를 '기사와의 관련성이 명백히 드러나는 취재원'으로 '그 취재원이 누구인지 독자가 알 수 있는 취재원'이라고 정의했다. 또 PEJ는 '취재원 인용의 투명성(transparency of the sourcing)'이 최고 수준인 보도를 '투명 취재원이 4개 이상 포함된 기사'로 한정했다(박재영, 2006).

투명 취재원이 중요한 이유는 정보의 사실성과 진실성을 높여주는 기준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재영·안수찬·박성호, 2014). 박재영·이완수(2007a)는 인용과 취재원 적시는 언론의 신뢰성, 진실보도, 사실성, 전문성과 직결되는 요소로서 민주주의 기여라는 언론의 궁극적인 사명 달성에 토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동근(2001)은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뉴욕타임스 취재보도준칙은 취재원을 실명으로 밝히는 것이 언론의 신뢰도와 공정보도의 기본이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기자에게 익명을 요구하므로 그런 취재원에게는 기자가 더욱 더 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박재영, 2006). 결국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익명으로 처리하게 되면, 수용자는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조차 갖지 못하므로 기사의 신뢰도는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Blankenburg, 1992; Martien-Kratzer & Thorson, 2007).

손태규(2004)는 기자가 조금만 더 현장에 가고 취재를 위해 노력하면 실명취재원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편의를 위해 익명취재원을 쓰게 된다면, 예외여야 할 익명보도는 불가피한 관행으로 변질된다고 지적했다. 이상기(2006)는 이러한 익명의 남용은 기자가 정보가 부정확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보도할 수 있는 유혹에 더 빠질 것이며 가공한 취재원을 익명취재원으로 포장할 가능성도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재영과 이완수(2007a)는 언론이 인용과 취재원 적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진실보도는 실패한다는 전형적인 예가 『워싱턴포스트』 자넷 쿡(Janet Cooke) 기자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쿡은 1980년 9월 '지미의 세계(Jymmy's World)'라는 기사에서 8살짜리 지미가 엄마와 엄마 남자친구의 위협에 의해 매일 헤로인을 복용했다고 보도하여 퓰리처상을 받았다. 쿡은 편집자에게 기사 속의 모든 취재원들은 실존 인물이지만 누구에게든 실명을 밝히면 자기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해 익명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미는 가공의 인물이었고 기사는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퓰리처상을 철회됐다(Anderson, 1982). 이 경우처럼 완전조작은 아니더라도, 수용자는 취재원이 불명확하거나 전혀 알 수 없는 가명인 채로 기사를 접하게 되면, 그것이 기자의 주관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김연미, 1997; Fedler et al., 2005). 이처럼 연구자들은 익명취재원을 금지하는 것은 언론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한 원칙이므로 취재원을 명시하는 것, 특히 취재원을 투명하게 담는 것이 진실추구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모범적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말했다(김옥조, 2004; Potter, 2006).

특히 한국 언론은 지금까지 근거 없는 주장이나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추론 등에 의존해서 기사를 작성한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이는 결국 내적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자 기사의 품질에 대한 문제 제기인 셈이다. 예를 들어 보면, 검증 가능한 정보원의 수가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원에 근거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평가 또는 판단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준웅·김경모, 2008).

관점의 다원성은 '큰 틀에서' 기사를 읽고 측정하는 유목이다. 제시된 관점 및 견해가 다양한 정도를 뜻한다(김경모 외, 2020). '관점(viewpoint)'은 일반적으로 사안을 둘러싼 의견(opinion)'이다(윤영철·김경모·김지현, 2015).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박성호·윤영민, 2016; 박재영, 2006; 박재영·이완수, 2007a, 2010; 박재영 외, 2014; 이건호, 2008; 김경모 외, 2018)에서는 기사나 뉴스

리포트에서 제시되는 관점의 양태를 중심으로 '복합적 관점', '대체로 단일 관점', '완전히 단일 관점'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복합적 관점'은 기사 전체에서 하나의 견해가 3분의 2 이상을 넘지 않으면서 그와 다른 견해가 3분의 1 이상을 넘는 경우이다. '대체로 단일 관점'은 하나의 견해가 3분의 2 이상을 구성하면서 그와 다른 견해가 일시적으로 언급된 경우로 정의한다. '완전히 단일 관점'은 하나의 견해가 지배적으로 표현되고 그와 다른 견해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은 큰 틀에서 볼 때 대개 찬성과 반대로 나뉜다. 만일 반대 입장이 미약하다고 한다면, 찬성 일변도로 보도하는지, 반대 입장을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는지, 반대 입장도 상당히 반영하는지 등을 측정해보는 것이다(김경모 외, 2018).

이해 당사자는 기사의 사안과 관련되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주체들을 의미한다. 언론이 다루는 거의 모든 사안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다. 시민 대중은 과거처럼 동질적이지 않으며 여러 개의 거대한 집단들로 나뉘어 있고 동일 그룹 내에서도 여러 상이한 입장의 하위 그룹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언론은 이런 그룹들을 기사에 최대한 많이 등장시킴으로써 그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소개하고 사회적 소통에 기여하며 상호 이해 증진을 북돋는다. 이해 당사자 수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김경모 외, 2018).

갈등적 상황에 있다고 여겨지려면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이해 당사자가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야구경기에서 기본적으로 두 팀이 이해 당사자다. 이에 더해, 관중이나 야구협회의 이해관계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해 당사자는 4개가 된다. 또 다른 예로는 만약 현대자동차 노조파업 기사에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조, 정부, 소비자, 하청업체 A가 등장했다면 이해 당사자는 5개가 된다. 그런데 하청업체 A와 이해관계가 상이한 하청업체 B까지 기사에 등장했다면 이해 당사자는 6개가 되는 것이다. 이해 당사자는 반드시 실명일 필요는 없다. 기사에 익명으로 등장했더라도 상이한 이해관계를 언급하는 취재원은 이해 당사자로 간주될 수 있다(김경모 외, 2018). 관점이라는 개념은 취재원이나 이해관계자가 몇 명(개)이든 관계없이 기사에 나타난 견해가 단일한지, 다양하게 담겼는지를 보는

항목이다.

이 PEJ의 2005년 보고서는 각 신문에서 3개 섹션을 선정하여 각 섹션의 1면에 게재된 모든 기사를 분석했다(박재영, 2006). 3개 섹션은 종합(A) 섹션, 메트로(Local/Metro) 섹션, 스포츠(Sports) 섹션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PEJ의 보도 지수를 스포츠 보도에 적용하여 기사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국내 뉴스 품질 선행 연구

국내에서도 다수의 연구자들이 기사의 품질을 측정해왔다. 이 PEJ가 제시한 보도 지수와 함께 국내 맥락에 적합한 다양한 측정 항목을 새로 개발한 연구(박재영, 2006; 박재영·이완수, 2007; 박재영·이완수, 2010) 들도 진행됐다. 앞서 언급했듯 뉴스 품질은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분석대상이 정치 기사인지 법조 기사인지 경제 기사인지에 따라 품질 측정 기준이 조금씩 상이했다. 이런 사실은 품질 측정이 단일 기준이 아닌 분석 대상의 특성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유수정·이건호, 2020).

(1) 심층성

심층성은 모든 기사에서 강조되는 저널리즘의 덕목이다(박재영·안수찬·박성호, 2014). 뉴스의 심층성은 일반적으로 정보의 깊이와 다양한 관점으로 구성된다(Brooks et al., 2014; Rich, 2007; Schudson, 1995). 심층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뉴스는 수용자가 사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이는 단순한 설명과 묘사 보다는 맥락을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현된다(박성호·윤영민, 2016; 이건호, 2010). 심층성은 기사의 깊이를 평가하는 여러 연구들에서 활용됐으나 학자마다 상이하게 정의하는 개념이므로 기사의 심층성을 측정하는데 곧바로 적용할 만한 구분 틀은 없다(박재영·안수찬·박성호, 2014). 국내 연구에서는 반허스트와 머츠(Barnhurst & Mutz)의 구분 틀이 가장

빈번하게 쓰였고 이와 유사한 틀 또한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 기사의 구성방식: 사건 중심 vs. 분석 중심

반허스트와 머츠(Barnhurst & Mutz, 1997)는 기사의 구성 방식을 사건 중심 보도(event-centered coverage)와 분석 중심 보도(analysis-centered coverage)로 구분하고 분석 중심 보도가 맥락을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틀을 토대로 사건 중심 기사보다는 분석 중심 기사를 더 심층적인 기사로 분석한 바 있다(박재영·안수찬·박성호, 2014). 반허스트와 머츠는 두 유형의 보도를 명확히 정의하진 않았으나 논문의 문맥으로 볼 때, 사건 중심 보도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가?"처럼 단순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사건 발생 자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다. 반면 분석 중심 보도는 그런 일과 말이 어떤 배경에서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사안이 어떻게 변모하게 됐으며 향후 파장은 어떠할 것인지 등을 전체 맥락 속에서 보도하는 것을 뜻한다(박재영·안수찬·박성호, 2014).

- 기사의 구성방식: 사건 중심 vs. 맥락 중심

좋은 기사의 요건 중 하나는 기사에서 맥락(context)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Glandly, Shapiro, & Castaldo, 2007; Lacy & Rosenstiel, 2015). 맥락을 제공한다는 것은 기자들이 사건이나 이슈를 전달할 때, 단순히 사실적 정보뿐 아니라 사실적 정보의 배경이나 원인을 알 수 있고 앞으로의 경과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Kovach & Rosenstiel, 2014; Spurk, Lopata, & Keel, 2010).

기사의 맥락 제공 여부를 측정하는 방식은 학자마다 조금씩 달랐다. 예를 들어 스퍼크 등(Spurk, Lopata, & Keel, 2010)은 특정 사안에 대한 맥락은 다음과 같은 4개 단계의 정보를 더 많이 포함할수록 그 사안을 더 완벽하게 다룰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사건에 대한 단순 기술, 직접적인 원인이나 계기,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역사와 배경, 그리고 잠재적인 결과 등을

얼마나 포함했는가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다(김경모 외, 2018). 이러한 맥락에서 김경모 외(2018)의 연구에서는 ① 각각의 기사가 과정만 포함했는지, ② 원인, 과정, 결과를 포함했는지, ③ 과정, 결과, 전망을 포함했는지, 그리고 ④ 원인, 과정, 결과, 전망 등을 모두 포함했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해 적용하기도 했다. '어떠한 맥락에서 사건(혹은 이슈)이 발생·진행됐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가 원인, 과정, 결과, 전망 등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다뤄서는 안 되며 이를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판단에서라고 김경모 외(2018)는 밝혔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사건 또는 이벤트 중심의 보도에 비해 그 의미와 맥락을 설명하는 분석 중심의 보도가 더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 언론에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진행됐다. 뚜렷이 대비되는 두 범주의 기사 유형을 일컫는 개념은 연구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뚜렷하게 상호 차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코딩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반허스트와 머츠의 '이벤트 중심 보도'와 '분석 중심 보도'가 심층성 분석의 기본적 구분 틀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박재영·안수찬·박성호,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반허스트와 머츠의 구분 틀을 사용해 분석을 진행한다.

- 기사의 길이

기사의 길이는 길어야 좋을까? Barnhurst와 Mutz(1997)는 1894년에서 1994년까지 100년 간의 미국 신문을 조사하여 2개의 의미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나는 미국 신문 기사가 점점 길어져서 '긴 저널리즘(long journalism)'으로 변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이벤트 중심의 보도(event-centered reporting)'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벤트 중심의 보도는 사안이나 발언 자체를 사건 형식의 뉴스로 가공한 것으로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누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기사다. 미국 신문에서 이벤트 중심의 보도를 대체한 것은 '분석 중심의 보도(analysis-centered reporting)'로서 사안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안의 원인과 배경 즉 '왜(why?)'와 '어떻게(how?)'를 포함시킨

기사였다.

이재경(2006b)도 과거 연구에서 위와 비슷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는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의 대통령 보도를 비교하여 조선일보 기사는 단순한 사실로 구성된 짧은 저널리즘(short journalism)이며 뉴욕타임스는 'why'와 같은 분석적인 내용이 담긴 긴 저널리즘(long journalism)의 특징을 가졌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함의를 찾아냈다. 첫째, 단순 사실 중심 또는 개인 언행 중심의 한국형 저널리즘 모델은 기사를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간단하고 쉽지만 기자의 종합적 사고나 분석능력 함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결국 그것이 한국 정치 기사의 전문성 향상을 가로 막는 제약이 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두 번째 함의는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다. 즉, 한 취재원의 언행을 중심으로 작성된 기사는 상대편이나 제 3자의 관점이 배제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파편적이고 자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갈등을 증폭시켜 독자의 종합적 사고와 판단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정파적 현실 인식을 조장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이런 의미에서 뉴욕타임스가 채택한 분석 위주의 긴 저널리즘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한 이재경의 최종 결론이었다(박재영, 2006).

긴 저널리즘은 기사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짧은 분량의 지면 또는 방송기사에 많은 취재원과 이해 당사자를 포함시키고 사안과 관련된 관점을 복합적, 분석적으로 제시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정보도 없고 함의도 없는 신문'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극복하려면 기사의 내용이 깊고 풍부해야 하며 그런 긴 글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 또한 기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박재영, 2006).

결국 기사의 길이는 기사의 구조, 내용,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짧은 기사에 다양한 취재원과 이해 당사자를 포함시키고 관점을 복합적으로 제시하며 스토리까지 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뉴욕타임스 1면 기사의 평균 길이 19.5매는 조선일보 1면 3.6매의 약 5.4배다. 신문 전 지면의 모든 기사를 보더라도 뉴욕타임스 기사 8.2매는 조선일보 4.5매의 1.8배다(박재영,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기사의 맥락적 심층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2020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뉴욕타임스와 국내 일간지의 스포츠 기사의 길이를 측정해 비교해보고자 한다.

(2) 정확성

정확성은 저널리즘 교과서에서 뉴스의 생명으로 여겨진다. 정확성은 과거에는 비교적 단순한 개념으로 취급돼, 사건이나 행위를 진실에 어긋나지 않게 재현하며 왜곡 없이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으면 정확성을 충족한 것으로 여겨졌다(강명구, 1994, Blankenburg, 1970). 이런 관점에서 실증 연구(최윤희, 1989; Berry, 1967; Pulfork, 1976; Singer, 1990; Tankard & Ryan, 1974; Tichenor, Olein, Harrison, & Donohue, 1970)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기사에 나타난 이름, 제목, 내용 등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였다(박성호·윤영민, 2016).

그러나 정확성은 사실과의 일치를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논의가 많다. 여기서 핵심은 취재원이 명확해야 하고, 기사의 술어 표현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바치와 로젠스틸(Kovach & Rosenstiel, 2014)은 정확성이 맥락, 해설, 논쟁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토대이기 때문에 기사에서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웅과 김경모(2008)는 정확성을 품질 좋은 뉴스의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무엇이 얼마나 정확해야 정확하다고 판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사에서 부정확한 표현을 제거하는 것이 정확성을 구현하는 현실적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기사의 종결 어미에서 '~라고 알려졌다'는 표현이 뉴스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박성희, 2004).

정보의 출처, 즉 취재원이 어떻게 활용됐는가는 뉴스 품질 연구에서 자주 다뤄졌다. 앞에서 제시한 미국의 PEJ(2005)는 실명으로 제시된 투명 취재원의 수가 4명 이상이어야 고급 기사라고 평가했고, 국내 연구들(이건호, 2008; 박재영·이완수, 2007a; 박재영·이완수, 2010; 한국언론재단, 2007)도 같은 방식으로 투명 취재원의 빈도를 조사했다. 더불어 익명 취재원이 얼마나 사용됐는가도 핵심적인 검증

항목이 됐고 후속연구에도 적용된 바 있다(예: 박재영. 2006; 박재영·이완수, 2007b; 손태규, 2004; Martin-Kratzer & Thorson, 2007). 내부 고발자 등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이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취재원에 의존한 뉴스는 신뢰하기 어렵고, 심지어 거짓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Kovach & Rosenstiel, 2014; The Missouri Group, 2014). 남재일(2006)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익명 취재원을 인용하면서 기자가 자신의 의견을 포함시켰다는 응답이 24.4%로 나타난 조사 결과도 있다(박성호·윤영민, 2016).

Ⅲ.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한국 일간지의 기사의 품질을 비교해 봄으로써 현재 스포츠 보도의 장점 또는 미흡한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좋은 스포츠 저널리즘'의 기준으로 제시한 6가지 가운데 개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3가지를 검증해 기사의 품질을 비교 분석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2020 도쿄올림픽 기간 국내일간지와 뉴욕타임스 스포츠 보도의 품질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 1-1. 2020 도쿄올림픽 기간 국내일간지와 뉴욕타임스 스포츠 보도의 구성 방식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 1-2. 2020 도쿄올림픽 기간 국내일간지와 뉴욕타임스 스포츠 보도의 투명 취재원 수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 1-3. 2020 도쿄올림픽 기간 국내일간지와 뉴욕타임스 스포츠 보도에서 기사의 길이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 1-4. 2020 도쿄올림픽 기간 국내일간지와 뉴욕타임스 스포츠 보도의 이해 당사자 수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 1-5. 2020 도쿄올림픽 기간 국내일간지와 뉴욕타임스 스포츠 보도에서 관점의 다양성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 1-6. 2020 도쿄올림픽 기간 국내일간지와 뉴욕타임스 스포츠 보도에서 특정 프레임 빈도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Ⅳ. 연구방법

1. 자료의 구성

1) 분석 기간

분석 기간은 2020 도쿄 하계올림픽 개막식 날인 2021년 7월 23일 금요일부터 폐막식 다음 날인 2021년 8월 9일까지로 정했다. 해당 기간에 발행된 신문 지면에 실린 모든 올림픽 관련 스포츠 기사를 수집해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요일에는 지면 신문을 발행하지 않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일요일에도 지면 신문을 발행한다. 2020 도쿄 하계올림픽 기간 내 일요일이 3번(7월 25일, 8월 1일, 8월 8일) 포함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린 경기는 차주 월요일 지면에 실린다. 따라서 8월 7일 토요일과 폐막식인 8월 8일 일요일에 열리는 경기는 8월 9일 월요일 지면에 반영됨에 따라 8월 9일자 지면을 포함한 총 18일치의 지면 기사를 분석하기로 했다.

2) 분석 대상

미국의 종합 일간지인 뉴욕타임스(NYT) 그리고 국내 종합 일간지인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분석 대상 신문으로 선정했다. 뉴욕타임스는 취재보도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여겨지며 미국 신문들은 물론이고 국내 다수의 신문들이 준거로 삼고 있는 언론이다. 때문에 한국과 미국 신문의 보도 내용을 비교 분석한 선행연구(박재영·이완수, 2007a; 박재영, 2004; 이재경, 1997, 2001, 2006, 2007b; 이건호, 2008 등)에서도 모두 뉴욕타임스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뉴스분석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국내 대형신문이다(박재영·이완수, 2007a).

지면에서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을 다룬 기사는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2020 도쿄 하계올림픽 기사는 대체로 올림픽 특집면이나 스포츠면에 배치됐으나 다른 면에 실린 기사이더라도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기사의 경우는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도쿄올림픽 경기나 도쿄오림픽과 관련한 이슈 등이 기사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도쿄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는 기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피니언 지면의 칼럼과 사설 또한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 있기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도쿄올림픽 기사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경기 일정을 소개하는 등의 3줄짜리 스트레이트 기사, 기자 바이 라인이 없는 짧은 기사는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020 도쿄 하계올림픽 기사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이외의 국내외 다른 이슈, 경기와 관련된 스포츠 기사 또한 제외하였다. ‘○○면에서 계속’과 같이 1면에서 다른 지면으로 이어지는 형태의 점프 기사는 두 면에 나온 기사라도 하나의 기사로 보았다. 국내 종합일간지는 스크랩마스터, 뉴욕타임스는 뉴욕타임스 웹사이트의 ‘Today’s Paper’에 실린 지면을 추출해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기사는 조선일보 183건(41.5%), 한겨레 101건(22.9%), 뉴욕타임스 156건(35.4%)으로 총 440건이었다. 일자별 기사 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일자별 기사 수

일자/언론사	조선일보	한겨레	뉴욕타임스
7월 23일 금	11	8	5
7월 24일 토	13	2	6
7월 25일 일	-	-	6
7월 26일 월	12	12	12
7월 27일 화	14	10	8
7월 28일 수	12	7	8
7월 29일 목	11	8	6
7월 30일 금	13	7	7
7월 31일 토	11	3	6
8월 1일 일	-	-	9
8월 2일 월	14	7	12
8월 3일 화	13	5	11
8월 4일 수	12	8	10
8월 5일 목	11	5	12
8월 6일 금	11	7	10
8월 7일 토	13	2	12
8월 8일 일	-	-	7
8월 9일 월	12	10	9
총	183	101	156
	440		

단위: 건

2. 분석 유목

본 연구에서는 앞서 좋은 스포츠 저널리즘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측정 도구를 통해 기사 내용 분석을 진행했다. 좋은 스포츠 저널리즘의 첫 번째 기준은 '보다 적당하게 맥락을 담은 보도(more and/or more appropriately contextualized reporting)'이며 사건 중심 기사인지 분석 중심 기사인지를 구별하는 기사의 구성

방식, 투명 취재원의 수, 기사의 길이로 측정한다. 두 번째 기준은 '보다 비판적인 언론의 업무와 보다 균형 잡히고 편향적이지 않으며 중립적인 보도(more critical media work and more balanced, unbiased and neutral reporting)'로 갈등 기사에 한해서 이해 당사자의 수와 관점의 다양성을 분석한다. 세 번째 기준은 '보다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으며 교육적인 보도(more socially responsible and educative coverage)'이며 승리지상주의 프레임, 성차별주의 프레임, 지나친 민족주의 프레임, 선정주의 프레임의 빈도를 확인한다.

미국의 우수 저널리즘을 위한 프로젝트(PEJ)가 개발한 보도 지수에 해당하는 투명 취재원의 수, 이해 당사자의 수, 관점의 다양성 변인은 선행연구(박성호·윤영민, 2016; 박재영·이완수, 2007a, 2010; 이완수·박재영, 2013)에서 빌려왔다. 각 유목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보다 적당하게 맥락을 담은 보도
(more and/or more appropriately contextualized reporting)

(1) 기사의 구성 방식

기사 내용 구성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구분했다. 구성 방식의 분류는 선행연구(박재영·안수찬·박성호, 2014; 박성호·윤영민, 2016; 김경모 외, 2018)와 같이 반허스트와 머츠(Barnhurst & Mutz, 1997)의 이벤트 중심 보도(event-centered coverage)와 분석 중심 보도(analysis-centered coverage)를 큰 틀로 하되 구체적인 분류 가이드라인은 선행연구의 코딩 가이드북을 참고해 설정했다. 분석 중심 기사일수록 깊이 있고 입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맥락적인 보도라고 할 수 있다.

- 이벤트 중심 기사: '누가 무엇을 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다'와 같이 현상을 기술하는 내용이 중심인 기사를 말한다. 경기 일정, 결과 등 계획되어 있는 사건이나 발생한 사건 자체를

단순히 있는 그대로만 기술하는 것이 해당된다. 이벤트 중심인 내용이 기사 전체의 절반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이벤트 중심'으로 분류했으며 '0'으로 코딩했다. 사건 중심 기사라고도 한다.

- 분석 중심 기사: 해당 사건과 취재한 내용이 어떤 배경에서 발생했고 그로 인해 사안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사건의 파장은 어떠할 것인지가 중심으로 기술된 기사를 말한다. 특히 스포츠 기사에서는 단순히 경기 내용이나 장면, 결과 자체만이 아니라 경기 전 전략적인 분석이나 경기 후 경기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분석, 상대팀의 전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선수의 훈련 스토리 등을 전체 맥락 속에서 보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사안의 의미와 맥락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사다. 취재원의 말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설명하고 경기 내용을 분석하면서 전반적인 맥락을 담기 때문에 이벤트 중심 기사에 비해 깊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안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를 담은 보도도 포함된다. 분석 중심인 내용이 기사 전체의 절반 이상이 되는 경우에 '분석 중심'으로 분류했으며 '1'로 코딩했다.

(2) 투명 취재원의 수

투명 취재원은 기사 안에서 문장의 주어로 등장하거나 정보의 출처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취재원을 뜻한다. 취재원이 실명으로 제시되면 정보의 출처를 검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투명 취재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다양한 맥락을 담을 수 있기에 기사가 입체적이고 정확성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취재원은 반복해서 나오더라도 중복해 세지 않았다. 제한된 취재원에 의존해 쓴 기사가 여러 실명 취재원이 있는 것처럼 왜곡되기 때문이다(박성호·윤영민, 2016). 투명 취재원을 세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개인 투명 취재원>

- 성과 이름이 완전히 명시된 취재원(예: 김연경은 ~,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
- 성 또는 성의 초성만 표기되거나 가명인 경우는 익명 취재원이다.

<단체/집단 투명 취재원>

-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이 명확한 공식 명칭으로 쓰여 소속을 알 수 있는 경우(예: 국제올림픽위원회는 ~, 대한체육회는 ~).
- 브리핑이나 공식 기자회견처럼 공개된 내용을 전하는 경우(예: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 주어가 아니지만 정보의 출처인 경우(예: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올림픽위원회는 ~)

<자료 투명 취재원>

- 정보의 출처인 자료나 기록의 명칭이 정확하게 제시된 경우(예: IOC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AP통신 자료집에 따르면~)

(3) 기사의 길이

기사의 길이는 취재원의 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심층성과 같은 기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이건호·정완규, 2007; 박성희, 2004). 박성희(2004)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전체 기사 중에서 피처 기사의 비중이 높은데, 일반적으로 피처 기사는 단순한 스트레이트 기사에 비해 구성이 입체적이며 분량도 길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기사의 길이가 길게 되면 취재원의 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사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식은 박재영(2006)의 방식을 차용한다. 기사의 단어 수를 일일이 확인한 뒤 영어 단어 수에 2.96배를 곱해서 한글 글자 수로 환산한다. 그리고 이를 다시 200자 원고지로 환산하는 식이다.

표 2. 기사의 길이 측정 방법

구분		측정 방법
기사의 길이	한국 기사	기사 전체 글자 수/200
	미국 기사	(기사 전체 단어 수*2.96)/200

2) 보다 비판적인 언론의 업무와 보다 균형 잡히고 편향적이지 않으며 중립적인 보도

(more critical media work and more balanced, unbiased and neutral reporting)

보다 비판적이면서 균형 잡히고 한 의견에 쏠리지 않는 중립적인 보도는 다양한 의견을 담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다양한 의견이라 함은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찬반 의견이 첨예한 이슈 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고르게 듣고 이를 균형 있게 기사에 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갈등 기사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는 유목이다. 따라서 스포츠 경기에 대한 설명, 분석이나 특정 선수의 스토리에 대하 기사 등 일반적인 스포츠 기사에서는 앞서 설명한 첨예한 갈등적 상황이 거의 없기에 해당 유목에 한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갈등 기사인 경우에 분석 유목은 다음과 같다.

(1) 이해 당사자의 수

이해 당사자는 이해관계가 상이한 주체(different interested groups)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야구 경기 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팀이 이해 당사자인 것으로 본다. 거기에 관중이나 한국야구위원회의 이해관계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해 당사자는 4개가 되는 것이다.

이해 당사자의 수는 대체로 취재원의 수와 일치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취재원은 사람, 집단, 자료 등이 기사에 인용된 상태를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이해 당사자는 기사에 인용 형태로 제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기사의

문맥상 그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특정 이해 당사자의 발언 등을 명확히 인용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입장을 기사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로 간주했다.

(2) 관점의 다원성

관점의 다양성은 제시된 관점 및 견해가 다양한 정도를 뜻한다. 기사의 내용이 주로 누구의 입장에서 말해지고 있는가를 보는 유목이다. 하나의 기사 안에서 단일한 시각과 견해가 내용을 지배한다면 그 기사는 사안과 폭과 깊이를 협소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는 기사일 수 있다. 관점 구분은 선행연구(박성호·윤영민, 2016; 박재영, 2006; 박재영·이완수, 2007a, 2010; 박재영·안수찬·박성호, 2014; 이건호, 2008)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기사의 관점이 다음 세 가지 가운데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 골랐으며 복합적 관점일수록 '보다 비판적이면서 균형 잡히고 한 의견에 쏠리지 않는 중립적인 보도'인 것으로 봤다.

- 완전히 단일 관점: 하나의 견해가 지배적으로 표현되고 그와 다른 견해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경우.
- 대체로 단일 관점: 하나의 견해가 3분의 2 이상을 구성하면서 그와 다른 견해가 일시적으로 언급된 경우.
- 복합적 관점: 하나의 견해가 기사의 3분의 2 이상을 넘지 않으면서 그와 다른 견해가 3분의 1 이상을 넘는 경우.

여기서 '다른 견해'란 '다른 취재원의 견해'가 아니라 '관점이 다른 견해'를 의미한다. A 취재원의 지배적 견해를 뒷받침하는 B 취재원의 견해가 제시되면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완전히 단일 관점'으로 기록했고, 같은 집단 안에서도 관점을 달리하는 견해가 등장하면 '단일 관점'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기자의 분석과 진단에서 다른 시각이 나타난 경우도 '다른

견해’로 봤다.

3) 보다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으며 교육적인 보도

(more socially responsible and educative coverage)

스포츠가 특정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부합하여 체제를 강화하거나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미디어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김기태, 2010). 스포츠 기사를 통해 전달되고 확산되는 특정 가치나 사고는 사회적으로 매우 지배적이며 뉴스 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포츠 정신에 맞지 않는 보도 프레임으로 꼽혀온 다수의 보도 프레임이 어느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으며 교육적인 보도’에 맞지 않다고 분류하는 보도 프레임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내용이 기사 내에 한 부분이라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1’로 아닐 경우 ‘0’으로 코딩했다. 승리지상주의와 선정주의에 모두 해당하는 기사의 경우 두 프레임을 모두 카운트에 포함했다.

(1) 승리지상주의 프레임

승리지상주의는 스포츠 보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동시에 가장 많이 지적되는 프레임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스포츠 경기는 승리를 목표이자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승리를 중요시 여기고 최우선으로 보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승리만이 가치 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나 금메달이 최고이고 은·동메달은 부족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오로지 승패나 메달 획득 여부만으로 경기의 가치를 평가하는 프레임을 말한다. 순위, 메달(색) 또는 승리만 강조하거나 패배를 비난하고 부정적인 뉘앙스로 표현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태권도 종목에서 금메달이 한 개도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종주국 체면이 말이 아니다’와

같은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체면’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을 뜻하고 ‘말이 아니다’는 형편 따위가 몹시 어렵거나 딱하다는 뜻이다. 선수들의 경기 내용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단순히 금메달을 따지 못한 상황에 대해 남을 대하기에 떳떳하지 않고 어렵거나 딱하다고 평가한 것은 승리, 메달을 으뜸으로 삼는 표현이다.

(2) 성차별주의

선수의 경기나 기량에 대한 내용보다 외모에 집중하거나 외모를 부각, 중시하는 프레임을 말한다. 특히 스포츠 보도에서 여성 선수를 표현함에 있어 실력이나 전문성보다 여성임을 부각하거나 외모를 묘사하는 표현이 빈번하다는 것은 선행연구(이장영, 2001; 남상우, 2004, 홍승후, 2016)에서도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였다. 자주 등장했던 표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금발 미녀, 요정, 원숙한 여성미, 공주, 낭자, ~~한 얼굴, 꽃미남(녀) 등이 그 예시다.

(3) 지나친 민족주의, 국가주의적 표현

국가대표 간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 나라 자체를 이기는 것처럼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표현을 말한다. 물론 국가 대항전 성격이 강한 올림픽 대회의 경우 스포츠 경기가 국민을 통합하고 민족적 자긍심과 자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적 표현을 사용할 경우 전 세계를 통합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스포츠의 가치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

(4) 선정주의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자극적인 단어, 표현이나 스포츠를 전쟁으로

비유해 원초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프레임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앞의 세 프레임과 동시에 쓰이면서 표현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아 프레임이 중복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1승 제물로 생각했던 뉴질랜드', '도쿄에 태극기를 꽂게 됐다' 등과 같은 표현이 선정주의 프레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3. 코더 간 신뢰도

코더 간 신뢰도 측정을 위해 저널리즘 교육을 받고 코딩 경험이 있는 코더 2명(국내 일간지 1명, 뉴욕타임스 1명)을 모집했다. 코더들은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작한 코딩 가이드북을 기준으로 내용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자와 코더들의 기사 분석이 완료된 후 Holsti(1969)의 신뢰도 평가 방식을 사용하여 코더 간 일치도를 조사했다. 전체 표본의 약 10%가 넘는 50건의 기사(국내일간지 30건, 뉴욕타임스 20건)을 무작위 추출해 측정했다. 그 결과 값은 투명 취재원 수 .90, 사건 중심/분석 중심 기사 여부 .84, 프레임 여부 .90으로 도출됐다. 기사의 길이 측정을 위해 글자 수를 세거나 단어 수를 세는 단순한 코딩은 제외했다.

표 3. 분석 유목

Good sports journalism criteria	Evaluating Tool		Details
More and/or more appropriately contextualized reporting	기사의 구성 방식 (사건 중심/분석 중심)		내용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구분한다. '사건 중심' 기사는 '누가 무엇을 했다'와 같이 사건 발생 자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다. '분석 중심' 기사는 사안의 의미와 맥락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사다. 경기 내용의 단순한 서술을 넘어 그 플레이에 대한 분석을 담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도가 그 예시다.
	투명 취재원의 수		투명 취재원은 문장의 주어로 등장하거나 정보의 출처로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취재원을 뜻한다. 투명한 취재원이 많을수록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정보, 의견을 들어 기사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심층적이고 문맥을 담을 수 있다. 투명 취재원은 기사 개인, 단체/집단, 자료 투명 취재원으로 구분한다.
	기사의 길이		기사의 길이가 길수록 기사의 깊이가 깊어지고 정보량이 많으며 다양한 내용을 담는다. 한미 기사의 길이를 연구한 박재영(2004)의 연구에 따라 한국 기사는 글자 수를 200으로 나누고 미국 기사는 단어 수에 2.96을 곱해 한글 글자 수로 환산한 후 200으로 나눈다.
More critical media work and more balanced, unbiased and neutral reporting	이해 당사자의 수		이해관계가 상이한 주체를 말한다. 예컨대, 야구경기는 기본적으로 두 팀이 이해 당사자이며, 거기에 관중이나 야구 협회의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해 당사자는 4개가 된다. 갈등 기사에서만 볼 수 있는 지표다.
	관점의 다양성		내용이 주로 누구의 입장에서 말해지고 있는가를 뜻한다. '완전히 단일 관점'은 하나의 견해가 지배적으로 표현되고 그와 다른 견해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경우이고 '대체로 단일 관점'은 하나의 견해가 3분의 2 이상을 구성하면서 그와 다른 견해가 일시적으로 언급된 경우, '복합적 관점'은 하나의 견해가 기사의 3분의 2 이상을 넘지 않으면서 그와 다른 견해가 3분의 1 이상을 넘는 경우로 정한다. 갈등 기사에서만 볼 수 있는 지표다.
More socially responsible and educative coverage	프레임	승리지상주의	승리 또는 금메달만으로 경기의 가치를 평가하는 프레임이다. 순위, 메달(색) 또는 승리만을 강조하거나 패배를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노골드 수모', '요코하마 참사', '동메달에 그쳤다' 등이 그 예시다.
		성차별주의	여성 선수가 운동선수로서 지녀야 할 능력이나 위상보다는 외모 등을 강조하는 프레임이다. 내용과 관계없는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표현도 이에 해당한다. 예시로는 '빌로디드는 외모로만 보면 운동선수보단 '셀러브리티(유명인)에 더 가까워보인다. 하지만 예쁘다고, 가냘프다고, 우습게 보면 큰코다친다.', ''셀러브리티'의 순도 면에서는 독일 육상 국가대표 선수 알리사 슈미트도 빌로디드 못

			지않다. 슈미티는 작년 8월 영국 매체 '더 선'이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운동선수'란 주제로 진행한 투표에서 1위를 거머쥐었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나친 민족주의	경기의 승리를 마치 자국 국력의 승리와 일치시키며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프레임이다. 국가와 민족을 비교해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 또한 이에 해당한다. '일본 유도 심장부서 태극기를 올려', '갚아줬다', '설욕' 등이 예시다.
		선정주의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단어와 표현으로 스포츠 경기를 묘사하는 프레임이다. 이는 앞의 세 프레임과 함께 쓰이며 표현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 전쟁 등 자극적인 군사적 표현, '1승 제물로 생각했던 뉴질랜드', '혈전 끝에 상대를 압도' 등이 그 예시로 볼 수 있다.

Ⅴ.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2020 도쿄올림픽 기간 국내일간지와 뉴욕타임스 스포츠 보도의 품질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라는 큰 줄기의 연구 문제를 6개의 세부 연구 문제로 나누어 검증했다.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 날인 2021년 7월 23일자 지면부터 폐막식 다음 날인 8월 9일 지면까지 조선일보 183건, 한겨레 101건, 뉴욕타임스 92건 총 440건을 분석했다. 스포츠 기사의 품질 비교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좋은 저널리즘, 좋은 스포츠 저널리즘의 판단 기준에 따라 기사의 구성 방식, 투명 취재원의 수, 기사의 길이, 갈등 기사에서의 관점의 다양성과 이해 당사자의 수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로 비판 받아 온 특정 프레임의 유무가 언론사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했다.

표 4. 분석 유목별 분석 도구

<table>
<tr><th>Good sports journalism criteria</th><th colspan="2">Evaluating Tool</th></tr>
<tr><td rowspan="3">More and/or more appropriately contextualized reporting</td><td colspan="2">사건 중심/분석 중심</td></tr>
<tr><td colspan="2">투명 취재원의 수</td></tr>
<tr><td colspan="2">기사의 길이</td></tr>
<tr><td rowspan="2">More critical media work and more balanced, unbiased and neutral reporting</td><td colspan="2">이해 당사자의 수</td></tr>
<tr><td colspan="2">관점의 다양성</td></tr>
<tr><td rowspan="4">More socially responsible and educative coverage</td><td rowspan="4">프레임</td><td>승리지상주의</td></tr>
<tr><td>성차별주의</td></tr>
<tr><td>지나친 민족주의</td></tr>
<tr><td>선정주의</td></tr>
</table>

1. 연구 문제 1-1

연구 문제 1-1 '2020 도쿄올림픽 기간 국내일간지와 뉴욕타임스 스포츠 보도의 구성 방식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조선일보, 한겨레, 뉴욕타임스 기사 총 44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조선일보는 전체 분석 기사 대상 183건 가운데 117건(63.9%)이 사건 중심 기사였으며 66건(36.0%)이 분석 중심 기사였다. 분석 대상 언론사 가운데 분석 기사 비중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전체 101건 중 58건(57.4%)이 사건 중심 기사였고 나머지 43건(42.5%)이 분석 중심 기사였다. 뉴욕타임스는 총 156건 기사 가운데 64건(41.0%)이 사건 중심 기사였으며 92건(58.9%)이 분석 중심 기사로 전체 기사 중 분석 중심 기사가 절반을 훌쩍 넘었다. 뉴욕타임스는 분석 대상인 세 언론사 가운데 유일하게 사건 중심 기사보다 분석 중심 기사의 비중이 더 많은 언론사였다. 교차분석(카이스퀘어 검정) 결과 언론사와 사건 중심/분석 중심 비중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x^2 = 18.32, df = 2, p = .0001).

표 5. 기사의 구성 방식 비교

	조선일보	한겨레	뉴욕타임스	전체
사건 중심	117(63.9)	58(57.4)	64(41.0)	241(54.3)
분석 중심	66(36.0)	43(42.5)	92(58.9)	201(45.6)
전체	183(100)	101(100)	156(100)	440(100)

x^2 = 18.32, df = 2, p = .0001 단위: 건(%)

2. 연구 문제 1-2

연구 문제 1-2 에서는 '2020 도쿄올림픽 기간 국내일간지와 뉴욕타임스 스포츠 보도의 투명 취재원 수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검증했다. 그 결과, 조선일보는 전체 기사 183건의 투명 취재원의 수 평균이 1.95명으로 나타났으며 투명 취재원의 수가 가장 적었던 기사는 0명, 가장 많았던 기사는 8명이었다. 한겨레는 기사 총 101건의 투명 취재원의 수 평균이 1.93명이었으며 투명 취재원의 수 최솟값은 0, 최댓값은 7 이었다.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총 156건의 투명 취재원의 수 평균값이 3.51명으로 국내일간지(조선일보, 한겨레) 투명 취재원의 수 평균의 1.8배에 해당했다. 투명 취재원의 수가 가장 적었던 기사는 0명이었고 가장 많았던 기사는 13명이었다.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에서 언론사 간 투명 취재원의 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M = 2.50$, $SD = 2.16$, $F = 30.31$, $p = .0001$). 이는 뉴욕타임스가 국내 유력 일간지인 조선일보, 한겨레보다 한 기사 안에 더 많은 투명 취재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티트머스는 '롤 모델'이자 경쟁자인 러데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열심히 쫓아가야 할 러데키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했다. 러데키가 자유형 종목에서 그동안 쌓아 온 위대한 업적을 본받으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였다. 티트머스는 풀 밖으로 나와 러데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복스올 코치에 대해서도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이라며 공을 돌렸다. 2년 만의 재대결에서 또 티트머스에게 잡히며 올림픽 2연패에 실패한 러데키는 "그만하면 잘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필사적으로 싸운 기분이라 너무 실망스럽지는 않다"고 했다.
>
> - 조선일보 2021년 7월 27일자 26면 -

> She is also a geographical exception: While, as a group, the players are mostly Californians, Johnson is a Floridian who became a first-team all-American at Princeton. "I'm an outsider in a lot of ways," she said. "Water polo isn't a very popular sport in Miami."
>
> What Johnson and all of her teammates have, though, is the kind of

multidimensional intelligence that is vital in their tactical, fast-shifting sport.

"You're playing three games when it comes to water polo," said Steffens, who has undergraduate and master's degrees from Stanford. "You're playing the overwater game that fans can see. You're playing the underwater game that no one can see - you have to be calm while underwater there is all this chaos.

- New York Times 2021년 7월 27일자 B10면

표 6. 투명 취재원의 수 비교

	조선일보	한겨레	뉴욕타임스
투명 취재원의 수 (평균)	1.95	1.93	3.51

M = 2.50, SD = 2.16, F = 30.31, *p* = .0001 분석 단위: 기사 한 건

3. 연구 문제 1-3

연구 문제 1-3 은 '2020 도쿄올림픽 기간 국내일간지와 뉴욕타임스 스포츠 보도에서 기사의 길이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검증했다. 단위는 선행연구에 따라 200자 원고지 1매로 통일했다. 기사의 길이 평균은 조선일보는 7.24매, 한겨레는 6.63매, 뉴욕타임스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두 배가 넘는 14.43매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에서 언론사 간 기사의 길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M* = 9.65, *SD* = 6.41, F = 96.92, *p* = .00001). 분석 대상 기사 가운데 길이가 가장 짧았던 기사는 조선일보 1.66매, 한겨레 2.58매, 뉴욕타임스 2.28매였으며 길이가 가장 길었던 기사는 조선일보 22.95매, 한겨레 13.35매, 75.86매였다.

표 7. 기사의 길이 비교

	조선일보	한겨레	뉴욕타임스
기사의 길이 (평균)	7.24	6.63	14.43

M = 9.65, SD = 6.41, F = 96.92, p = .00001

분석 단위: 기사 한 건
길이 단위: 매(원고지 200자)

표 8. 기사의 길이 최솟값/최댓값 비교

	조선일보	한겨레	뉴욕타임스
기사의 길이 최솟값	1.66	2.58	2.28
기사의 길이 최댓값	22.95	13.35	75.86

분석 단위: 기사 한 건
길이 단위: 매(원고지 200자)

4. 연구 문제 1-4

연구 문제 1-4 에서는 '2020 도쿄올림픽 기간 국내일간지와 뉴욕타임스 스포츠 보도의 이해 당사자 수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검증했다. 본 연구 문제는 갈등기사에 한해 분석했고 분석 대상 가운데 갈등기사의 수는 조선일보 6건(3.2%), 한겨레 4건(3.9%), 뉴욕타임스 6건(3.8%)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추출한 각 갈등기사에 포함된 이해 당사자 수의 평균은 조선일보 5.17명, 한겨레 3.25명, 뉴욕타임스 4.83명이었다.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에서 언론사 간 이해 당사자 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M = 4.56, SD = 2.36, F = 0.68, p = .5255).

표 9. 갈등기사 내 이해 당사자의 수

	조선일보	한겨레	뉴욕타임스
이해 당사자의 수 (평균)	5.17	3.25	4.83

M = 4.56, SD = 2.36, F = 0.83, p = .4572 분석 단위: 기사 한 건

5. 연구 문제 1-5

연구 문제 1-5 에서는 '2020 도쿄올림픽 기간 국내일간지와 뉴욕타임스 스포츠 보도에서 관점의 다양성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를 확인했다. 연구 문제 1-4와 마찬가지로 갈등기사에 한해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는 총 6건의 갈등기사 가운데 복합 관점이 2건으로 33.3%, 대체로 단일한 관점이 4건(66.6%)이었다. 완전히 단일한 관점은 없었다. 한겨레는 갈등기사 총 4건 중 복합 관점이 1건(25%), 대체로 단일한 관점이 3건(75%)으로 분석됐으며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단일한 관점에 해당하는 갈등기사는 없었다. 뉴욕타임스는 총 6건의 갈등기사를 볼 수 있었으며 복합 관점이 1건(16.6%)를 차지했고 대체로 단일한 관점이 5건으로 83.3%에 해당했다. 완전히 단일한 관점인 갈등기사는 한 건도 없었다. 언론사에 따라 관점의 다양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카이스퀘어 검정)을 사용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x^2 = 0.4444, df = 2, p = .801).

> 도쿄 여름올림픽 육상 종목에서 세계신기록이 잇따라 나오면서, 선수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첨단기술에 대한 찬반양론이 제기되고 있다.
> 이번 대회에서는 400m 장애물달리기(허들)에서만 4개의 세계신기록이 나오면서 선수들의 노력과 경기력 향상보다는 기술에 의존한 성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에 육상 트랙과 선수들의 신발에 들어간 첨단소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육상 트랙은 작은 공기주머니가 들어간 육각형 구조로 이뤄져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반발력을 줘 선수들이 더 잘 뛰게 돕는다. 스프링이 달린 뜀틀 도구인 트램펄린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이다. 여자 400m 허들에서 세계기록을 깨며 은메달을 딴 미국의 달릴라 무함마드는 "트랙이 정말 빠르게 느껴졌다. 허들 선수로서, 허들 사이를 뛰는 게 얼마나 쉬웠는지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미국 나이키가 처음 적용한 뒤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신발 제조업체들이 앞다퉈 적용한 탄소섬유도 선수들의 기록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탄소섬유는 애초에 장거리 선수용 신발 밑창에만 적용됐는데, 이제는 중거리 선수용 신발 밑창과 신발에 달린 돌기(스파이크)에도 널리 쓰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남자 400m 허들에서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한 노르웨이의 카르스텐 바르홀름은 다른 선수들이 신은 탄소섬유 적용 신발에 대해 "충격 흡수를 원한다고 신발에 트램펄린을 넣는 건 엉터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여자 100m에서 33년 만에 올림픽 신기록을 세운 자메이카의 일레인 톰슨헤라는 "(이번 결과는) 물론 훈련 덕분이다. 트랙이나 신발은 문제가 안 된다"는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제육상경기연맹도 첨단기술이 문제가 안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배스천 코 연맹 회장은 "혁신을 막지 않는 것이 내 본능"이라며 "물론 균형이 필요하다. 새 디자인과 재료가 육상을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걸로 바꿔버리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 우리는 문제없는 지점에 있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2021년 8월 9일자 4면 -

위 기사는 선수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첨단기술에 대한 찬반양론을 균형 있게 다룬 '복합 관점' 기사다. 복합 관점은 하나의 견해가 기사의 3분의 2 이상을 넘지 않으면서 그와 다른 견해가 3분의 1 이상을 구성하는 경우이다. 기사는 반대 측 의견으로 <파이낸셜 타임스>가 해당 이슈와 관련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는 내용과 노르웨이 허들 선수 카르스텐 바르홀름의 비판을 담았다. 찬성 측 입장으로는 트랙이나 신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자메이카 육상 선수 일레인 톰슨헤라,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 서배스천 코의

의견을 실었다.

> Hadzic, 29, who grew up in Montclair, N.J., had to fly separately, his lawyer said, has not been permitted to stay in the Olympic Village and has been residing at a remote hotel. This precaution was taken for the safety and well-being of other American fencers who expressed concerns about Hadzic's presence and a desire to minimize distractions, according to U.S.A. Fencing.
>
> … "I think of the possibility that this man accused of sexual assault by three women, credibly in the eyes of investigators, will stand atop the Olympic podium, wrapped in an American flag," said Jack Wiener, the lawyer for one of Hadzic's accusers and an adjunct professor at Brooklyn Law School. "And I ask: How can this be happening in 2021? Have we learned nothing these past few years?"
>
> … SafeSport said the arbitration hearing was not meant to be an evidentiary procedure or to decide the merits of the case, only to review the information used in making the temporary suspension. Cases can last months or years and can result in a range of outcomes from exoneration to suspension to a permanent ban from involvement in a sport.
>
> … Wiener's client said Hadzic grabbed her buttocks in 2015 and pushed her against a dresser on a night when she had earlier resisted his advances at a bar when she was a student at Columbia. The woman said the incident happened at Hadzic's apartment in Hoboken, N.J., where she had gone as a protector of a female friend whom she did not want to leave alone.
>
> - New York Times 2021년 7월 23일자 B8면 -

위의 뉴욕타임스 기사도 마찬가지로 '복합 관점' 기사이다. 이 기사는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미국의 펜싱 남자 에페 대표팀 선수 앨런 하지치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연관 단체들의 조치, 하지치의 변호사, 피해자의 변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입장을 복합적으로 다루어 하나의 견해가 기사의 3분의 2 이상을 넘지 않으면서 그와 다른 견해가 3분의 1 이상을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표 10. 갈등기사 내 관점의 다양성 비교

	조선일보	한겨레	뉴욕타임스	전체
완전히 단일한 관점	0(0.0)	0(0.0)	0(0.0)	0(0.0)
대체로 단일한 관점	4(66.6)	3(75.0)	5(83.3)	12(75.0)
복합 관점	2(33.3)	1(25.0)	1(16.6)	4(25.0)
전체	6(100)	4(100)	6(100)	16(100)

x^2 = 0.4444, df = 2, p = .801 단위: 건(%)

6. 연구 문제 1-6

연구 문제 1-6 은 '2020 도쿄올림픽 기간 국내일간지와 뉴욕타임스 스포츠 보도에서 특정 프레임 빈도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확인했다. 프레임 빈도는 조선일보가 가장 많았으며 승리지상주의, 성차별주의, 지나친 민족주의, 선정주의 등 네 가지 프레임을 총 23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승리지상주의가 7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노골드 수모', '동메달에 그쳤다', '3400억 원짜리 망신', '허무하게 올림픽을 마쳤다', '동메달 마저 못 딴다면 납득하기도 어렵다'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지나친 민족주의로는 상대 국가에게 '갚아줬다', '설욕'과 같은 표현을 볼 수 있었다.

한겨레의 기사에서는 승리지상주의와 선정주의 등 두 가지 프레임을 총 8번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일보에 비해 빈도가 적었지만, 승리지상주의 표현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노메달' 또는 '노골드'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선정주의 표현으로는 '1승 제물로 생각했던 뉴질랜드', '도쿄에 태극기를 꽂게 됐다' 등을 볼 수 있었다.

뉴욕타임스의 스포츠 보도에서는 위 네 가지 프레임 중 유일하게 승리지상주의 프레임 단 한 건만 볼 수 있었다. 해당 기사는 미국 남자 육상 허들 400m 계주 경기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인 것에 대해 '실망(disappointment)' 이라고 반복해 표현했다.

<성차별주의, 선정주의>

키 172cm에 몸무게 48kg, 긴 금발 머리와 수려한 몸매. … 빌로디드는 외모로만 보면 운동선수보단 '셀러브리티(유명인)'에 더 가까워보인다. 하지만 예쁘다고, 가냘프다고, 우습게 보면 큰코다친다. … 슈미트는 작년 8월 영국 매체 '더선'이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운동선수'란 주제로 진행한 투표에서 1위를 거머쥐었다. … 177cm 몸무게 70kg, 자신의 튼튼한 몸을 표지로 한 건강식 레시피 80가지 이상을 모은 요리책을 2016년 펴냈다.

- 조선일보 2021년 7월 24일자 24면 -

<승리지상주의>

'반세기'만에 최악의 성적이다. … 한국이 도쿄올림픽에서 금 6개, 은 4개, 동 10개로 받아든 16위(금 우선 기준)란 성적보다 나쁜 걸 찾으려면 무려 45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 태권도와 사격을 노골드로 마친 게 큰 타격이었다. … 특히 레슬링은 아예 '노메달'로 대회를 마쳤다.

- 조선일보 2021년 8월 9일자 면 -

<승리지상주의>

사상 초유의 '올림픽 노골드'다. … 한국 태권도는 이번 올림픽을 사상 초유의 '노골드'로 마치게 됐다. 이번 대회 한국 태권도는 세계 1위 장준(21)과 이대훈(29)이 잇달아 금메달 획득에 실패하는 등 주요 선수들이 줄줄이 탈락의 쓴맛을 봤고, 태권도 경기가 열리는 마지막날에도 끝내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 한겨레 2021년 7월 28일자 3면 -

<승리지상주의>

<u>The disappointment</u> for U.S. track and field, especially on the men's side, continued in familiar fashion on Thursday, when four of the world's fastest sprinters failed to qualify for the final of the 4x100-meter relay race. The American <u>disappointment</u> continued minutes later,

as Hansle Parchment of Jamaica upset world champion Grant Holloway in the 110-meter hurdles. Holloway had the lead early but could not hang on. Ronald Levy of Jamaica won the bronze, relegating Devon Allen of the United States to fourth. The relay crystallized a performance by the U.S. men at the Olympic track meet that is quickly going off the rails. … Strangely, the relay frustration for the American men is unique to the Olympic Games. They won the event at the 2019 world championships and earned a silver medal in the race at the 2017 world championships. The Olympic frustration in the 110-meter high hurdles is somewhat less acute. Americans failed to medal in the event in 2016 but won two medals in 2012 and 2008.

- New York Times 2021년 8월 6일자 B8면 -

표 11. 특정 프레임 빈도 비교

		조선일보	한겨레	뉴욕타임스	전체
프레임	승리지상주의	17(73.9)	5(62.5)	1(100)	23(71.8)
	성차별주의	1(4.3)	0(0.0)	0(0.0)	1(3.1)
	지나친 민족주의	2(8.6)	0(0.0)	0(0.0)	2(6.2)
	선정주의	3(13.0)	3(37.5)	0(0.0)	6(18.7)
전체		23(100)	8(100)	1(100)	32(100)

단위: 건(%)

Ⅵ.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사의 품질을 분석한 연구에서 전무했던 스포츠 보도만을 대상으로 개별 기사의 품질을 살펴본 연구이다. 저명한 해외 8개 저널에서 우수한 스포츠 보도에 관해 연구한 논문 376개를 분석한 결과인 '좋은 스포츠 저널리즘의 기준'을 바탕으로 미국의 민간 언론연구기관인 PEJ(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의 'PEJ 보도지수(PEJ Reporting Index)'와 개별 기사의 품질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기사 품질 측정 도구를 활용해 분석했다. 스포츠 보도라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보도 프레임 또한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뉴욕타임스의 스포츠 보도가 국내 일간지의 스포츠 보도보다 비교적 품질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좋은 스포츠 저널리즘의 기준으로 꼽은 '보다 적당하게 맥락을 담은 보도', '보다 비판적인 언론의 업무와 균형 잡히고 편향적이지 않으며 중립적인 보도', '보다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으며 교육적인 보도' 이 세 가지 측면을 각각의 측정 도구를 통해 평가해 봤을 때, 대부분의 측정 항목에서 뉴욕타임스의 스포츠 보도가 품질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한미 신문 기사의 품질을 비교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했다. 김경모 외(2018)의 한미 신문 1면 기사 비교, 이건호·정완규(2008)의 한미 신문의 1면 기사, 고영철(2019)의 한미 지역 일간지 1면 기사, 박성희(2004)의 한미일 신문 사회면 비교 분석 등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신문보다 미국 신문, 특히 뉴욕타임스의 품질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 특히 '보다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으며 교육적인 보도'에서는 스포츠 보도에서 꾸준히 지적돼 온 승리지상주의, 성차별주의, 지나친 민족주의, 선정주의 프레임의 빈도를 보았는데 뉴욕타임스에서는 한 건도 이 프레임에 해당하는 기사가 없었다.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종합하여 2020 도쿄올림픽 기간 국내 일간지 스포츠 기사의 품질과 뉴욕타임스 스포츠 기사의 품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보다 적당하게 맥락을 담은 보도

‘보다 적당하게 맥락을 담은 보도’ 측면에서는 뉴욕타임스가 국내 종합일간지보다 더 맥락을 담은 기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사의 구성 방식과 투명 취재원의 수 그리고 기사의 길이 세 항목에서 모두 뉴욕타임스가 더 맥락을 풍부하게 담았다. 먼저 기사의 구성 방식에서 ‘분석 중심’ 기사의 비율을 분석해 봤더니 뉴욕타임스가 58.9%로 국내 일간지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평균인 39.25%보다 19.65%p나 분석 기사 비중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분석 중심’ 기사는 ‘사건 중심’ 기사처럼 단순히 사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내용까지 다루는 것이기에 더 많은 맥락을 담을 수 있다. 따라서 뉴욕타임스의 스포츠 기사가 국내 스포츠 기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보다 맥락적인 보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얼마나 많은 투명 취재원의 이야기를 듣고 기사에 녹여 냈는지를 보는 ‘투명 취재원의 수’는 뉴욕타임스가 기사 한 건 당 3.51개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평균인 1.95개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취재원이 많을수록 하나의 사건도 보다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맥락과 상황을 실감나고 풍부하게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일간지에 비해 뉴욕타임스가 보다 맥락적인 보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기사의 길이’를 보았을 때 또한 마찬가지로 뉴욕타임스가 맥락을 보다 많이 담은 기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뉴욕타임스 스포츠 기사의 길이는 평균 14.43매였고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평균은 6.93매였다. 뉴욕타임스의 기사 길이가 국내 일간지보다 두 배가 훌쩍 넘었다. 길이가 짧은 기사에 많은 취재원과 심층적인 분석을 포함시키기는 힘들다. 따라서 기사의 길이가 길수록 보다 복합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데, 이처럼 뉴욕타임스 기사의 길이 자체가 두 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을 봤을 때 앞서 분석 중심 기사의 비율이 높고 투명 취재원의 수가 많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뉴욕타임스 기사가 분석 중심 기사 비중이 훨씬 많고, 투명 취재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기사의 길이는 두 배 이상 긴 결과는 선행연구(박성희, 2004; 이건호·정완규, 2008; 김경모 외, 2019; 고영철, 2019)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2. 보다 비판적인 언론의 업무와 균형 잡히고 편향적이지 않으며 중립적인 보도

균형 잡히고 편향되지 않은 기사란, 한 가지 입장에 쏠리지 않고 양쪽 의견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기계적 균형이라는 것이 저널리즘에서 불균형한 수정을 요하는 것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찬반이 팽팽하거나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양쪽의 의견을 고루 담으려 했는지를 중점으로 보았다. 이는 얼마나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었는지, 하나의 관점이 아닌 여러 관점을 담았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분석하거나 특정 선수에 대해 분석·인터뷰 하는 일반적인 스포츠 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찬반이나 논란이 있는 갈등기사에 한해서만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전체 분석 대상 기사 440건 가운데 갈등기사는 뉴욕타임스 6건, 조선일보 6건, 한겨레 4건으로 총 16건이었다. 일단 정치나 1면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갈등기사의 비중이 3.6% 정도로 현저히 적은 것을 보았을 때, 스포츠 보도가 다른 보도 분야보다 갈등이 적은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로 김경모 외(2018)의 연구의 분석 대상 기사 가운데 국내 일간지는 694건 이었는데, 이 중에 갈등기사의 비중이 약 60%였으며 뉴욕타임스는 전체 72건 가운데 74%가 갈등기사였다.

본 연구에서 갈등기사의 갈등기사에 한해 이해 당사자의 수 평균을 분석해 본 결과 뉴욕타임스는 4.8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평균은 4.21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조선일보가 5.17개, 한겨레 3.25개로 조선일보가 갈등기사에서는 뉴욕타임스보다 더 많은 많은 이해 당사자 수를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갈등기사에서 얼마나 다양한 관점을 다뤘는지 보면, 세 언론사 모두 갈등기사 가운데 완전히 단일한 관점으로만 보도한 기사는 없었으며 다른 의견이 일시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언급된 경우인 '대체로 단일한 관점'은 뉴욕타임스가 83.3%, 조선일보 66.6%, 한겨레가 75%였다. 하나의 주장과 관련한 내용이 기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지 않으며 다른 주장들도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 경우인 '복합적 관점'의 비율은 뉴욕타임스 16.6%, 조선일보 33.3%, 한겨레 25%로 나타났다. 김경모 등(2018)에서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과거에 비해 최근 국내일간지에서 '완전히 단일 관점' 기사 비율이 높아진 경향성을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 반면 스포츠 보도에서는 '완전히 단일한 관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미루어 보아, 스포츠 보도에서는 갈등을 다룬 기사 수가 적을 뿐 아니라 갈등기사에서도 정치나 사회 보도에 비해 더 다양한 관점을 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분석 대상인 갈등기사의 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의 수와 관점의 다양성 모두 통계적으로 언론사 간의 의미 있는 차이를 보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보다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으며 교육적인 보도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보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혀 왔던 '승리지상주의', '성차별주의', '지나친 민족주의', '선정주의' 이 네 가지 프레임이 '보다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으며 교육적인 보도'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네 가지 프레임의 빈도를 확인했다. 그 결과, 국내 종합일간지 특히 조선일보의 승리지상주의 프레임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440건의 기사 가운데 위 네 가지 프레임 빈도는 총 32번 이었는데, 그 중 조선일보 보도에서 발견된 승리지상주의 프레임만 17번 이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네 가지 프레임의 총 빈도를 보면 조선일보는 23번, 한겨레 8번 나타났다. 뉴욕타임스 기사에서는 네 가지 프레임 가운데 단 한 번 만의 승리지상주의 표현이 확인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뉴욕타임스가 취재보도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여겨지며 미국 신문들은 물론이고 국내 다수의 신문들이 준거로 삼고 있는 언론이라는 점을

결과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같이 뉴욕타임스가 국내 일간지의 2020 도쿄올림픽 기간 스포츠 보도에 비해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전반적인 기사의 품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미국 신문의 품질을 비교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 밝혀낸 결과와도 궤를 같이한다. 정치, 경제, 사회 보도 분야를 주로 다루는 1면 기사뿐 아니라 스포츠 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뉴욕타임스가 국내 일간지보다 기사의 품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4. 실무적 의의

지금까지 스포츠 보도의 품질에 대한 비판은 계속 반복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기사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품질에 대한 비판이 반복되는 우리와 다르게 품질 수준이 높다고 여겨져 온 뉴욕타임스와 같은 해외 유력지의 품질은 실제로 어떠한지, 또 국내 언론과 비교하면 품질의 어떤 점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연구 또한 전무했다. 기사유형이나 기사 수, 보도 프레임 등 보도행태를 분석해 비교한 연구는 있었으나 그마저도 소수에 불과했다.

본 연구는 언론학계에서 기사의 품질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빈번하게 쓰인 'PEJ 보도지수'를 포함해 분석 중심 기사/사건 중심 기사 여부, 기사의 길이 등을 활용해 뉴욕타임스와 국내 종합일간지의 2020 도쿄올림픽 스포츠 보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비교했다. 따라서 현재 스포츠 기사 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의 스포츠 기사 보다 국내 일간지 스포츠 기사의 취재원이 반밖에 되지 않고 맥락을 풍부하게 담는 분석 중심 기사 비중이 16%p~22%p 차이가 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당장 현장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에 있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Ⅶ. 제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만으로는 궁극적으로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 공공성 등 저널리즘의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기사의 품질 모두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는 스포츠 기사를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품질 기준에 의해 더 많은 요소를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통령 보도나 법조 보도 등의 품질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분야 특성에 맞는 지표를 일부 개발하기도 했던 것처럼 스포츠 보도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품질 평가 기준을 개발할 필요도 있어 보이다.

분석 대상도 신문 지면 기사에 한정하지 않고 온라인 기사의 품질을 언론사별로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 포털에서 대부분의 기사를 읽는 뉴스 소비자들이 기사의 품질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언론사들이 포털 생태계 클릭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깊이 없는 똑같은 내용의, 소위 복사 붙여넣기(복붙) 기사들이 반복되는 것을 매일 마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언론사라고 할지라도 온라인 기사에서 어떠한 품질의 기사를 내보내는지, 지면 기사와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언론사별로 어떻게 다른 모습이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스포츠 보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던 승리지상주의, 성차별주의, 지나친 민족주의, 선정주의 보도 프레임의 빈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에 비해 비교적 빈도가 많지 않다는 점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대가 변하고 이 같은 비판이 꾸준히 지적됨에 따라 국내 종합일간지 스포츠 기자들이 과거에 빈번하게 스포츠 기사를 구성했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관행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스포츠 저널리즘에서 개선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10~20년 전의 올림픽 보도와 최근의 올림픽 보도를 대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해 분석, 비교해 보는 연구 또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 문헌

고동완, & 이창현. (2022). 코로나 19 발생 이후 중국 관련 신문 사설의 뉴스 프레임 연구:< 조선일보> 와< 한겨레> 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11*, 43-74.

고은하. (2008). 아테네올림픽 신문보도의 내용분석:성별 보도량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1(1), 205-227.

김경모, 박재영, 배정근, 이나연, 이재경. (2018). *기사의 품질*.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김기태. (2010). 스포츠 저널리즘의 현황과 발전 과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18.

김수정, 조은희. (2005). 생명과학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뉴스 프레임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49*(6), 109-139.

김연미. (1997). 한국 신문 정치기사의 취재원과 취재원 밝히기.

김영욱. (2006). 신뢰성이 중요, 표현도 구체적이어야. 신문과 방송, *2*, 28-31.

김옥조. (2004). 미디어윤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용은, 민솔비. (20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에 대한 신문보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7(5), 241-256.

김원제. (2005). 미디어스포츠사회학.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김재영, 양선희. (2007). 한・미 신문의 윤리적 실천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51*(6), 243-266.

김지선, 김인형. (2018). 국가대항전에 대한 한일 언론 보도 프레임 비교 연구: 2015 프리미어 12 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1*(1), 25-41.

남상우. (2004). 스포츠사회학 : 일간신문 스포츠 지면에 나타난 여성 선수 사진의 내용 및 의미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3(4), 101.

남재일, 박재영. (2007). 한국 기획 기사 와 미국 피처 스토리 비교 분석. 한국 언론 재단.

문영. (2019).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신문보도 내용분석 : 성 편향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민주언론시민연합. (2021년08월05일). ‘올림픽 정신’ 강조한 언론, 올림픽 보도는 어땠나. *미디어오늘*. https://url.kr/jm2o19.

박보현, 임번장. (2006). 잃어버린 금메달: 2004 아테네올림픽 체조경기오심에 대한 미디어 텍스트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1), 117-131.

박성호, 윤영민. (2016). 방송 법조뉴스의 품질 연구:정확성, 심층성, 불편부당성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0(4), 83-120.

박성희. (2004). 신문 사회면 비교 분석. 서울: 미디어연구소, 78.

박성희, 김소희, 한승진. (2015). 인문, 사회과학편: 여성스포츠 선수에 대한 미디어 보도 프레임: 성 역할 고정관념과 일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4*(3), 385-394.

박재영. (2006). 뉴스 평가지수 개발을 위한 신문 1면 머리기사 분석. 2020 미디어위원회 실행위원회 편. 한국의 뉴스미디어 2006: 한국 저널리즘과 뉴스미디어에 대한 연차보고서(pp. 147-220).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박재영, 이완수. (2007a). 인용(quotation)과 취재원 적시(attribution)에 대한 한미 신문 비교.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439~468.

박재영, 이완수. (2007b). 『한국 신문의 1면 기사: 뉴스평가지수를 적용한 신문별, 연도별 비교(1990~2007년)』. 서울: 한국언론재단.

박재영, 이완수. (2010). 뉴스평가지수의 개발과 적용. 서울:한국언론진흥재단.

박재영, 안수찬, 박성호. (2014). 대통령 선거 보도의 기사품질, 심층성, 공공성의 변화: 1992~2012년 국내 주요 신문의 경우. 방송문화연구, 26(2), 33-66.

백승엽. (2014). 2012 런던 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관련 신문기사 비교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6), 787-800.

서희진, 김옥현. (2015). 한국 언론에 나타난 ‘김연아 VS 아사다 마오’ 구도 속의 미디어 프레임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4*(3), 127-139.

손태규. (2004). <서술적 보도와 해석적 보도: 신문 정치면 비교분석>. 서울:

미디어연구소.

송해룡. (2002). (영상 시대의) 미디어 스포츠. 송해룡 편역.

송해룡. (2002). 스포츠 저널리즘의 규범과 한계.관훈저널,43(3),121-130.

양승현. (2012). 한국 저널리즘의 뉴스 프레이밍 변화 연구. 국내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유병철, 이종영. (2017). 융복합 시대에서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6), 505-511.

유상건. (2019). 한국의 스포츠 저널리즘 톺아보기. 한국소통학회 2019 봄철 정기학술대회, 3-4.

유수정, 이건호. (2020). 방송뉴스의 단독 보도 품질 연구. 한국방송학보, 34(3), 174-210.

윤득헌. (2008). 스포츠와 미디어. 레인보우북스.

윤여광, 이인희. (2005). 스포츠 영웅의 미디어프레임과 수용 특성 연구. 언론과학연구, *5*(3), 373-410.

이건호. (2010). <언론 글쓰기, 이렇게 한다: 예비 언론인을 위한 기획기사 작성 방법>. 파주: 한울 아카데미.

이상기. (2006). 2016 신문방송연감. 68-77. 서울: 한국언론재단.

이성원, 이주원, 손지민. (2021년08월03일). “노메달도 괜찮아”…올림픽 모든 4등을 향한 찬사. 서울신문. https://url.kr/a4n732.

이완수, 박재영. (2013). 방송뉴스의 언어와 표현:뉴스언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4(1), 5-46.

이완수, 배정근. (2016). 경제 뉴스 품질에 미치는 다차원적 요인 탐구: 경제 뉴스 전문 매체 생산자와 소비자 집단에 대한 표적 집단면접(FGI). 미디어 경제와 문화, 14(4), 102-149.

이준웅. (2005). 갈등적 사안에 대한 여론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프레이밍 모형 검증 연구: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뉴스 프레임의 형성과 해석적 프레임의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1), 133-162.

이준웅, 박종민, 백혜진. (2015). 커뮤니케이션 과학의 지평. 나남.

이장영. (2001). 시드니 올림픽 , 스포츠 신문 기사의 내용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6, 1261-1270.

이장영, 강효민. (2010). 베이징 올림픽 신문 기사의 보도 유형과 상징화. 한국사회, 11(1), 25-46.

이재경, 김진미. (2000). 한국 신문 기사의 취재원 사용 관행.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91-307.

이재경. (2006). 한미 신문의 대통령 취재관행 비교: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 『언론과 사회』, 14권 4호, 37~69.

이재경. (2007). 한국 언론과 글로벌 스탠더드. 임상원 외. 민주화 이후의 한국언론. *183～-232.* 서울*:* 나남.

임재구, 정동근. (2010). 2009 월드베이스볼클래식대회 한, 일전 경기의 민족주의적 기사보도행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9*(1), 11-19.

임재구. (2014). 스포츠 저널리즘의 보도행태에 담긴 스포츠미디어에 관한 담론.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2(4), 59-77.

정강선, 안재석, 강종구. (2006). 스포츠신문 1면 기사프레임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1), 1-18.

정강선. (2007). 스포츠미디어의 보도형태와 수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 국내 박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정희준. (2006). 월드컵, 자본, 미디어의 삼각동맹과 애국주의.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2), 301-315.

조지현, 유상건, 김동학. (2021).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과 스포츠 저널리즘의 역할. 한국체육학회지, 60(5), 427-437.

지혜원. (2004), 韓.美 간의 올림픽 보도 행태에 관한 비교연구 :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즈의 2004 아테네 올림픽 보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최만수, 김동규. (2017). 스포츠미디어 저널리즘의 사회적 책무와 윤리성 구현.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5(1), 101-118.

함은주, 원영신. (2005). 글로벌 미디어스포츠 수용과 신자유주의적 문화정체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적 접근.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8*(3), 445-466.

홍승후, 김범준. (2016). 평창 동계 올림픽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신문보도 내용 분석: 한겨레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55(5), 387-397.

홍승후. (2016). 인문,사회과학편 : 소치 동계 올림픽 신문보도의 내용 분석: 성편향성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5(1), 555.

Barnhurst, K. G., & Mutz, D. (1997). American journalism and the decline in event-centered reporting. Journal of Communication, 47(4), 27-52.

Boyle, R. (2006). Sports Journalism: Context and Issues. London: SAGE.

Brooks, S. B., Kennedy, G., Moen, D. R. & Ranly, D. (The Missouri Group) (2014). News reporting and writing (11th ed.). New York, NY: Bedford/St. Martin’s Press.

Entman, R.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KAL and Iran Air incident. Journal of Communication, 41, 51-58.

Entman, R.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pp.51-58.

Gamson, W. (1992). Talking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Gamson, W. A.,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1), 1-37.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Iyengar, S. & Kinder, D. (1987). News that Matters: Television and American Opin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ovach, B., & Rosenstiel, T. (2014). 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 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 (3rd ed.). New York:

Three Rivers.

Lacy, S., & Rosenstiel, T. (2015). Defining and measuring quality journalism. Retrieved from Rutgers Schoo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http://mpii.rutgers.edu/wp-content/uploads/sites/129/2015/04/Defining-and-Measuring-Quality-Journalism.pdf

McLeod, D. M. & Detenber, B. H. (1999). Framing effects of television news coverage of social protest. Journal of Communication. pp.3-23.

Meyer, P. (2008). The elite newspaper of the future. *American Journalism Review*, *30*(5), 32-35.

Potter, D. (2006). Handbook of independent journalism. 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U.S. Department of State.

Rhee, J. W. (1998). Framing the Health Care Reform Campaign of 1993-94: News Frame, Interpretation, and Public Opinion Change. Political Communication, 15(2). pp.274-277.

Rich, C. (2007). Writing and reporting news: A coaching method (5th ed.). Belmont, CA: Thomson/Wadsworth.

Sabo D, Jansen SC, Tate D, et al. (1996) Televising international sport: Race, ethnicity, and nationalistic bias.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20(1): 7-21.

Schudson, M. (1995). The power of new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Schultz B and Sheffer ML (2010) An exploratory study of how Twitter is affecting sports journ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Communication* 3(2): 226-239.

Semetko, H. A., & Valkenburg, P.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 93-109.

Shah, D. (1996). A news model of framing in advertising.

Spurk, C., Lopata, S., & Keel, G. (2010). Measuring the 'democratic quality of radio news: Experiences form Liberia. Journal of African Media Studies, 2(2), 173-192.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The Free Press.

Wang Yi, 배재윤, & JaeYoonBae. (2016). 인문,사회과학편 :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보도 실태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과 중국의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5(2), 69.

Weedon, G., Wilson, B., Yoon, L., & Lawson, S. (2018). Where’s all the ‘good’ sports journalism? Sports media research, the sociology of sport, and the question of quality sports reporting.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53(6), 639-667.

Wenner, 송해룡, & Wenner, Lawrence A. (2004). 미디어 스포츠 / 로렌스 웨너 엮음 ; 송해룡 옮김.

부 록

[부록 1] 코딩 가이드북

Quality Journalism

2020 도쿄올림픽 스포츠 보도 내용분석

1.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및 기간

2020 도쿄올림픽 개막일인 2021년 7월 23일 금요일부터 폐막일 다음날인 8월 9일*까지 국내 일간지(조선일보, 한겨레)와 뉴욕타임스 지면에 실린 도쿄올림픽 관련 기사 모두가 분석대상이 된다.

다만, ‘오늘의 도쿄올림픽’, ‘도쿄올림픽 이모저모’처럼 단순히 경기 일정을 전달하는 등 3~4문장짜리 짧은 기사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자와 언론사의 의견이 담기는 오피니언 섹션도 제외한다. 점프 기사(“2면에서 계속” 과 같이 1면을 넘어 다른 지면으로 이어지는 기사)는 둘을 하나의 기사로 처리한다.

*폐막일인 8월 8일은 국내일간지가 신문을 발행하지 않는 일요일이다. 따라서 8월 8일 치러진 경기와 폐막식 기사까지 분석대상으로 삼기 위해 다음날인 8월 9일자 기사까지 포함한다.

2) 분석 요원 및 신뢰도 측정

연구자가 전체 분석 대상 기사를 모두 코딩하며 신뢰도 측정을 위해 기사 내용분석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코더로 구성한다. 연구자는 코더 간 신뢰도 측정을 위해 전체 분석 대상 기사의 10%에 해당되는 기사를 무작위 추출해 코더에게 배분한다.

2. 분석 유목

1) 투명 취재원의 수

투명 취재원은 문장의 주어로 등장하거나 정보의 출처로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취재원을 뜻한다. 실명 취재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동일한 취재원이 반복해서 나오더라도 중복해 세지 않는다. 또한 실명 취재원에 포함되는 취재원의 이름, 기관명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개인 투명 취재원>

– 성과 이름이 완전히 명시된 취재원 (예: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 ~~라고 황선우는 말했다.)

<단체/집단 투명 취재원>

–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이 명확한 공식 명칭으로 쓰인 경우 (예: 국제올림픽위원회는 ~, AP 통신은 ~)

– 주어가 아니지만 정보의 출처인 경우. (예: 대한체육회는 김 감독이 ~~라고 전했다.)

<자료 투명 취재원>

– 정보의 출처가 되는 자료나 기록의 이름이 명확히 제시된 경우 (예: IOC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 미국올림픽위원회가 공개한 서면 자료에 따르면 ~)

* 과거의 발언을 소개하는 문장은 '의견 정보'로 구분해 발화자를 취재원으로 기록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표는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으로부터 2억 원을 수표로 받아 유세 활동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에서 '박근혜 대표'는 취재원으로 기록했다. 정보의 출처가 의견을 밝힌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만 단순히 과거의 행위나 정보를 담은 문장은 '사실 정보' 문장으로 간주해 취재원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7월 30일 뉴욕타임스 B12면에 'To Sprinters, Hot Weather in Tokyo Feels Just Right' 기사에서 "Performance advantages for sprinters in hotter weather are relatively small, gains of 1 to 2

percent, scientists say” 와 같은 문장이 이에 해당한다.

2) 기사 분석 방식: 사건 중심 vs. 분석 중심

사건 중심 기사는 전체적으로 기사 내용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 뭐라고 말했는가?’, 또는 ‘누가 무엇을 했는가?’에 집중한 경우. 즉 행태 중심의 기사다. 단순히 경기 내용만을 서술하는 것이 해당한다. 현상 기술에 충실하고 표면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는 기사를 말한다. 스포츠 기사는 경기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가 구성되기 때문에 단순한 경기 장면이나 경기 내용에 대한 표면적인 내용은 사건 중심 기사로 본다. 경기 내용에 대한 전략적인 분석이라든지 해석이 들어가면 분석 중심으로 분류한다. 선수의 훈련 스토리,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것은 분석 기사에 해당한다.

다만, 사건 중심과 분석 중심의 모습이 모두 보이는 기사의 경우엔 절반을 초과하는 쪽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사건 중심 내용이 40%를 차지하고 분석 중심의 모습이 60%를 차지하는 경우 분석 중심 기사로 분류하는 것이다.

3) 보도 프레임

기사가 구성하는 프레임이 어떤 것인지 분류한다. 기사에서 발견한 프레임 표현은 모두 기재한다. 프레임 종류는 다음과 같다. 아래 프레임 중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NO’라고 기재한다.

(1) 승리지상주의 프레임

메달과 같은 성적, 우승, 승리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보도 프레임이다. 스포츠와 전쟁을 동일시하여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하는 필승 결의적 태도로 스포츠를 묘사한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정강선 · 안재석 · 강종구, 2006). (예: 노골드 수모/ 금메달 없이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에 그쳤다. / ~~이 동메달을 목에 걸어 체면치레했다.)

(2) 성차별주의 프레임

운동선수로서 지녀야 할 능력이나 위상보다는 여성 운동선수로서 포용적이고 여성적인 외모를 더 강조하는 프레임(박성희 · 김소희 · 한승진, 2015). (예: 김연아 황금몸매)

(3) 지나친 민족주의

민족주의 프레임은 스포츠에서 대한민국의 우월성과 자부심을 드러내는 프레임으로 국가, 민족, 자긍심, 긍지와 감동 등을 대중들에게 전달하여 자긍심과 애국심을 키우는 프레임을 말한다(장성구 · 김인형, 2017).

우리 젊은이들은 당찼다. (중략)처음부터 끝까지 경기장 구석구석을 기관차처럼 누비며 스톡홀름 올림픽이후 100년 만에 금메달을 노리던 축구 종가(宗家)영국을 무너뜨렸다.(중략) 2002월드컵 이후 주춤하던 한국 축구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열었다. 한국 선수단은 열대야를 뜬눈으로 밝히며 런던에 눈길을 붙박아놓은 국민을 감동시키고 있다(조선일보, 2012. 08. 05).

김한주(2008)는 민족주의 프레임을 독일 월드컵 뉴스가 월드컵을 통해 민족적 우월성과 자부심을 드러내며 민족, 태극기, 국가, 자긍심, 자부심, 애국주의, 긍지, 애국가, 감동 등의 표현을 통해 대중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애국심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4) 선정주의 프레임

선정주의(Sensationalism)란 인간의 감성적 혹은 원초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편집하는 것을 말한다(이수영, 2009).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군사적 표현, 싸움이나 전쟁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시다.

Abstract

Comparison of the Quality of Sport Articles:

Focusing on New York Times and Korean Daily Newspapers during the 2020 Tokyo Olympic Games

Lee Youn Ha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ecline in quality journalism has been highlighted as an important issue in extant international and domestic literature and as a result, a myriad of studies have focused on assessing and measuring journalism quality. In Korea, since the late 1990s, a growing body of academic research has questioned what constitutes “good journalism”, with many studies measuring the quality of individual articles based on different reliability standards and criteria. From 2010, studies began to analyze the quality of news articles in specific fields such as politics, law and economics, however, studies examining articles in the field of sport have been scarce, with even fewer studies, if any, comparing the quality of news reporting for sport articles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newspapers.

In light of this, the current study fills the gap in literatur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quality of news reporting between the New York Times and Korean Daily Newspapers’ sport articles during the 2020 Tokyo Olympic Games. Indexes used in previous studies to assess quality journalism such as source transparency, number of stakeholders, presence of multiple viewpoints, event-centered coverage/analysis-centered

coverage, article length and framing were used to conduct content analysis for 440 sport news articles from 23 July 2021 to 9 August 2021 across the different newspapers.

Overall, results indicate that the quality of news reporting for sport articles were higher for the New York Times than Korean Daily Newspapers. In particular, the portion of analysis-centered coverage articles, containing more context and in-depth analysis, was significantly larger for the New York Times. Also, the average number of source transparency for the New York Times was 1.8 times Korean Daily Newspapers, and the New York Times' average article length was 2 times longer than Korean Daily Newspapers.

Understanding and analyzing the current dynamics of news reporting in sport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sport journalism. Findings from this study provides strong empirical evidence and insights as to what constitutes to 'good journalism' in the sporting context. Specifically, the current study provides meaningful theoretical significance as it is one of the first attempts to compare the quality of news reporting for sport articles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newspapers. Moreover, standard indexes to assess quality journalism was first used in the field of sport. In addition, characteristics specific to sport articles were examined including framing, such as nationalism, sexism and exceptionalism, which has been considered a key issue in the coverage of sport news.

Keywords: Sport journalism, Quality journalism, Quality of sport articles, 2020 Tokyo Olympic Games, Content analysis, Framing

Student ID: 2020-23695